

고선강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기혼 자녀를 둔 부모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자원이전과 노후준비를 매개변인으로-

201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김영순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자원이전과 노후준비를 매개변인으로-

고선강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김영순

인 준 서

김영순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자원이전과 노후준비를 매개변인으로-

김영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본 연구는 기혼자녀를 둔 중년기 부모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로 자원이전과 노후준비가 생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자녀에 대한 중년기 부모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노후준비에 도움을 주어 중년기 부모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2009년 한국연구재단의 중년기가정의 세대 간 자원이전과 노후계획(kfr-2009-c00010)에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고, 최종 표본으로 기혼자녀를 둔 중년기 부모를 대상으로 1208 가구를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SAS/PC Statistic Program(Version 9.3)을 이용하여 표본의 특성과 자원이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원이전, 노후준비, 생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 t-test,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정서적 지지, 노후준비,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또한 생활 만족도에 대한 자원이전과 노후준비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모와 기혼자녀 간 자원이전, 부모의 노후준비 및 생활 만족도를 살펴 보았다. 부모와 기혼자녀 간 경제적 자원이전은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비율이 62.2%, 부모가 자녀로부터 수혜 받는 비율이 38.9%였고, 부모와 기혼자녀 간 도구적 자원이전은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비율이 28.64%이고, 수혜 받는 비율이 6.87%로 나타나 경제적 자원이전과 도구적 자원이전 모두 부모가 자녀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도구적 자원이전은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할 경우 가족원돌보기가 가장 많았고, 자녀로부터 수혜 받는 경우는 식생활영역에서 도구적 자원을 제공받고 있었으며, 정서적 지지는 평균 4.04점을 보여 부모 자녀 간 친밀도가 높았다. 노후준비의 경우 평균 2.63점으로 나타났으며, 생활 만족도는 평균 3.35점으로 나타났었다.

둘째, 부모와 기혼자녀의 특성에 따른 부모와 기혼자녀 간 자원이전에 대해 분석하였다.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모의 연령이 55-59세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가구소득이 많은 경우, 자녀수가 2명이하인 경우였다. 자녀의 연령은 어린 집단인 경우, 아들인 경우, 자녀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자녀가구에 자녀가 없는 경우에 부모가 기혼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였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는 경우는 부모의 연령이 많은 집단일수록, 부모가구의 가구소득은 3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때, 자녀수가 많은 경우이며, 자녀의 연령이 많은 경우, 자녀가구에 취학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구의 소득이 많은 경우에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고 있었다. 부모가 기혼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모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자녀의 연령이 30-34세인 집단에서, 자녀가 딸일 때, 자녀가 취업한 경우, 자녀가구에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구의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부모가 기

혼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였다. 자녀로부터 도구적 자원을 수혜 받는 경우는 부모의 소득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많은 경우, 자녀가구에 취학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부모는 자녀로부터 도구적 자원을 수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자녀와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자녀가 딸인 경우, 자녀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경우, 자녀가 취업한 경우, 자녀가구의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에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와 생활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부모의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는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가구소득이 많은 집단일수록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특성에 따른 생활 만족도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생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와 기혼자녀 간 경제적 자원이전, 도구적 자원이전, 정서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부모의 경제적 자원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한 경우, 부모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가 아들인 경우에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고, 아들인 경우,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자원 제공액수는 커졌으며, 자녀가구에 취학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의 경제적 자원 제공액수는 줄어들었다. 경제적 자원수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부모의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자녀가구에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와 자녀가구의 소득이 높은 경우 부모는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았다. 또한 경제적 자원수혜 여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경제적 자원 수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교육수준으로 자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로

부터 받는 경제적 자원 수혜액은 많아졌다.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도구적 자원 제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로부터 도구적 자원을 수혜 받는 경우, 자녀가 딸인 경우, 자녀가 취업한 경우, 자녀가구에 미취학자녀와 취학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구 소득이 높은 경우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도구적 자원 제공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가구에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로부터 도구적 자원을 수혜 받는 경우, 자녀가구의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때, 자녀가 딸인 경우에 도구적 자원 제공시간은 많아졌다. 도구적 자원 수혜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한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도구적 자원을 수혜 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도구적 자원수혜시간은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 자녀의 가구에 취학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자녀가구의 소득이 낮을수록 도구적 자원 수혜시간은 증가하였다. 또한 정서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 자원 수혜 여부, 자녀성별, 건강상태, 자녀수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는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딸인 경우에 친밀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부모와 기혼자녀 간 자원이전과 부모의 노후준비가 부모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자원이전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는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수혜받기 보다는 제공하였을 때 생활 만족도가 높았으며, 자녀와의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잘 할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부모의 생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후준비였다. 부모관련변수가 투입되면서 정서적 지지를 제외한 다른 자원이전의 영향력은 사라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기혼자녀와 자원이전보다는 부모의 특성 중 건강상태와 가구소득이 생활 만족

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관련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보면, 경제적 자원 제공액, 노후준비를 매개변수로 하였을 때, 생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 변수는 노후준비였고, 그 다음으로 건강상태, 가구소득, 정서적지지, 경제적 자원 수혜 여부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 자녀수와 교육수준은 경제적 자원 제공액과 노후준비를 매개하여 생활 만족도에 간접적 영향을, 경제적 자원 제공액, 연령, 교육수준, 소득활동여부는 노후준비를 통하여 생활 만족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 자원 수혜 여부, 건강상태, 가구소득은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모두 미쳤다.

정서적 지지와 노후준비를 매개변수로 한 생활 만족도에 대한 인과분석에서 생활 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후준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건강상태, 가구소득, 정서적지지, 경제적 자원 수혜 여부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 자녀수는 정서적 지지를 통해 생활 만족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 자원 제공 여부, 연령, 교육수준, 소득활동여부는 노후준비를 매개로하여 생활 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건강상태, 가구소득, 경제적 자원 수혜 여부는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모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 차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7
1. 생활 만족도.....	7
1) 생활 만족도에 대한 개념	7
2)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
2. 자원이전	15
1) 자원 및 자원이전의 개념	15
2) 자원이전과 관련된 주요이론	18
3)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3
3. 노후준비	33
1) 노후준비의 필요성 및 실태	33
2)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5
III. 연구방법	40
1. 연구문제	40
2. 자료 및 표본	42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43
4. 자료의 분석방법	46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7
VI. 연구결과 및 해석	50
1.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자원이전, 노후준비, 생활 만족도	50
1)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자원이전	50
2)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노후준비와 생활 만족도	53
2. 부모와 기혼자녀의 특성에 따른 자원이전	54
1) 부모와 기혼자녀의 특성에 따른 경제적 자원이전.....	54

2) 부모와 기혼자녀의 특성에 따른 도구적 자원이전.....	59
3) 부모와 기혼자녀의 특성에 따른 정서적지지	62
3.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와 생활 만족도 ...	64
1)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64
2)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특성에 따른 생활 만족도	66
4.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8
1)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68
2)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도구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75
3)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1
4) 부모와 기혼자녀간의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정리	83
5. 부모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부모와 자녀간의 자원이전과 노후준비의 영향력.....	85
1) 부모와 자녀간의 자원이전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	85
2) 생활 만족도에 대한 자원이전과 노후준비의 효과.....	89
 V. 결론 및 제언	 100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3-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43
<표 3-2> 기혼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의 일반적 특성	48
<표 4-1>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	51
<표 4-2>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도구적 자원이전	52
<표 4-3>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도구적 자원이전의 내용	53
<표 4-4>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적지지	53
<표 4-5>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노후준비와 생활 만족도	54
<표 4-6> 부모와 기혼자녀의 특성에 따른 경제적 자원이전	56
<표 4-7> 부모와 기혼자녀의 특성에 따른 도구적 자원이전	60
<표 4-8> 부모와 기혼자녀의 특성에 따른 정서적지지	63
<표 4-9>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65
<표 4-10>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특성에 따른 생활 만족도	67
<표 4-11>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적 자원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9
<표 4-12>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적 자원 수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2
<표 4-13>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도구적 자원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6
<표 4-14>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도구적 자원 수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9
<표 4-15>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2
<표 4-16> 부모와 기혼자녀간의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리	84
<표 4-17> 생활 만족도에 대한 자원이전의 영향력.....	88
<표 4-18> 부모의 경제적 자원제공과 노후준비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효과	91

<표 4-19> 생활 만족도에 대한 경제적 자원 제공과 노후준비의 효과분석	93
<표 4-20>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지지와 노후준비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효과	96
<표 4-21> 생활 만족도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노후준비의 효과분석...	98

그림 목 차

<그림3-1> 연구모형.....	41
<그림4-1> 부모의 경제적 자원 제공, 노후준비, 생활 만족도의 경로 모형	92
<그림4-2>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지지와 노후준비의 생활 만족도의 경로 모형	97

I. 서론

201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유소년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년층의 비율이 커지는 항아리형 인구피라미드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연령별 인구구조에서 40대 인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중년층의 높은 비율은 앞으로의 노년층의 증가를 예측하게 하며, 2012년 현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1.8%로, 2030년에는 24.3%, 2050년에는 37.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통계청, 2012),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평균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초혼연령이 상승하면서 생애주기에서 중년기가 연장되고 있다. 중년기는 일반적 연령을 기준으로 소득이 높고 여유로운 시기이다. 또 가족의 관점에서 자녀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자녀부양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는 시기인 동시에 노부모에 대한 돌봄의 책임이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과 자녀의 만혼현상으로 인해 중년기를 확장하여 보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인 연령을 기준으로 40세에서 60세 사이로 간주되었던 것을 앞뒤로 10년 정도의 연령을 더하여 30세에서 75세 사이를 중년기로 보거나(Lachman, 2001), 마지막 자녀의 결혼 또는 은퇴까지의 시기를 중년기로 간주하기도 한다(황주연, 2007).

우리나라의 중년기 세대는 훌륭한 인적자원으로 국가 경제 발전의 주역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IMF 위기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우리나라 경제가 고도성장 하는데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해 왔을 뿐 아니라 막강한 소비세력이 되어주어 민간 소비의 중추적인 역할도 해왔다(박선희, 2010). 또한 부모를 부양하는 동시에 자녀에 대한 양육과 교육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 가치관이 확대되면서 부모부양에 대한 자녀들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져서(양정선·김영순, 2004) 지금

의 중년기는 자신의 부모를 부양하지만 자녀들로부터 부양을 기대하기는 힘들게 되었다. 2012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02년 70.7%에서 2012년 33.2%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돌보아야 한다는 비율이 2002년 18.2%에서 2012년 48.7%로 크게 증가하여 자녀들의 부모부양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가족가치관이 변화하면서 부모들은 노후에 자녀로부터 부양을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노후생활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통계청(2012)에 의하면 2011년 현재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방법으로는 본인 및 배우자부담이 51.6%로 가장 많고, 자녀 또는 친척지원이 39.2%, 정부 및 사회단체가 9.1%이었으며, 이들의 소득수준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 2011년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를 100으로 했을 때 60세 이상 취업자의 월 평균 급여 수준은 75.6%이었으며,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82.3%, 여자는 54.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적 연금체계가 미흡하고 노후의 소득보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우리나라 중년기 세대에게 노후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며, 노후준비가 미흡하다면 자녀나 외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녀의 연령이 낮은 경우 부모는 자녀로부터 지원받기보다 오히려 자녀를 지원하는 입장이어서, 부모세대는 자신의 노후를 위한 소득마련보다는 우선적으로 자녀세대의 경제적 뒷바라지를 하는 실정이다(손용진, 2008).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아,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보건사회연구원(2009)에서 15세에서 59세의 기혼가구 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인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2009년 기준으로 출생 후 대학졸업까지 자녀 한 명에게 지출되는 총 양육비는 약 2억6천만원 이었고, 부모 중 절반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자녀양육을 책임

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 가구주 연령별 자녀양육기간에서는 50-59세 부모의 경우 대학졸업 때까지로 보는 비율이 40.5%로 가장 높았고, 혼인 때까지가 32.9%, 언제까지라도에 응답한 비율은 5.6%를 보여 자녀양육의 책임한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김승권, 2010).

과거에 비해 자녀에 대한 부양부담이 높아진 주된 원인은 자녀의 고학력에도 불구하고 취업난이 심각하고 경제상태가 어려운 것을 들 수 있다. 소득이 있어야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데 소득으로 연결되는 취업이 어렵고 고용상태가 불안정하여 자녀의 독립은 점점 늦어지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대학교육도 부모의 경제적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자녀가 독립을 한 이후에도 결혼이나 주택 등과 같은 생애사건들을 준비하기 위해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청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고선강, 2005). 이처럼 자녀들은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부모들은 자신들의 노후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녀들의 부양까지도 책임지고 있다. 또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된 경제적 단위를 형성한다 해도 부모의 도움에서 벗어나지 못해, 부모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거나 자녀가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육아 돌봄을 지원하고 자녀의 집안 일 들을 도와주는 형태로 자녀가족을 지원하는 것이다(고선강, 2012).

최근 한 생명보험회사의 은퇴연구소에서 50대 1000명을 대상으로 행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1.5%가 행복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현재 또는 장래에 가장 불안하게 생각되는 요소에 대해 42.7%가 자녀의 교육, 취업, 결혼비용 등의 자녀 뒷바라지문제라고 하였다(매일경제, 2012.11.26.). 이처럼 노년기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중년기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과중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이것은 중년기 부모들의 현재 생활의 유지뿐 아니라 미래 생활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인이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미래 생활에 대한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가족구성원과 사회의 다른 연령층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체 인구비율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년기 부모들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은퇴 후 살아가야 할 기간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을 80세로 예상하고 은퇴연령을 50대-60대로 보았을 때, 개인의 삶 중에서 4분의 1, 길게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은퇴 후의 생활로 보내게 된다. 한편, 직업을 갖고 소득을 획득하기 시작하는 시기를 25세 전후로 본다면 일생동안 노동기간은 25-35년 정도로 예상되며, 노동기간 동안 획득한 소득과 축적된 자산을 가지고 은퇴 전의 생활 뿐 아니라 은퇴 후의 생활까지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중년기 부모들은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여유로운 삶을 보장해 주는 장기적 노후준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김영순, 2007; 조추용 외, 2009).

노년기의 삶은 단순히 수명의 연장만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고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면서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노년기에 겪게 되는 사회적 역할, 소득, 가족, 친구, 건강의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심리·사회적 문제들은 노인들이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노년기에 적응하면서 만족스럽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노인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면 노년기에 진입하기 전에 그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장명숙·박경숙, 2012). 이러한 맥락에서 중년기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미래 노년기가 되었을 때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중년기 부모들은 과거 중년기 부모와 비교하여 당면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에 대한 부양부담이 크며 이러한 가족 부양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끌어 현재 생활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년기 부모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가족 부양과 노후준비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은 중년기 뿐 아니라 노년기의 생활 만족 및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최근 사람들의 삶

에서 물질적인 부분의 중요성 보다 삶의 질, 행복과 같은 심리적 주관적 부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이 반영되어 많은 학자들이 삶의 질, 생활만족에 대한 연구들을 발표하였다.

생활 만족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우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분석한 연구들(김미령, 2012; 이명숙, 2003; 최현석·하정철, 2012)이 있으며,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생활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들(임소진·어성연, 2011; 장명숙·박경숙, 2012)이 있다. 또 자녀와의 정서적인 관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와의 정서적 지지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소영·옥선화, 2002; 김효정·김명자, 1995; 박성연·최혜경, 1985)이 있다. 이들 연구들 중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관계와 대인간 교류 등과 같은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들이 있다. 이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를 친구, 가족(친척/자녀), 기타(이웃)로 분류하여 이들의 사회적 지지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김종임, 2011; 김정엽, 2010; 박성희·이지현, 2006; 안경숙, 2005; 이재림·옥선화, 2001; 서병숙·이현, 1995).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의 인간관계적 측면들을 강조하여 누가 지지를 제공하는가에 초점을 두어 어떤 내용의 지지가 제공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왔다. 몇몇 연구들(임효연, 2009; 안경숙, 2005; 이형실, 2003; 김은경, 2002)은 사회적 지지의 내용에 주목하여 경제적지지, 도구적지지, 정서적지지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제공되는 자원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연구되지는 않았다. 또한 노인을 중심으로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노인은 도움을 받는 대상으로 간주되어 노인이 자원을 제공하여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측면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원을 제공하거나 지지를 통하여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은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으나, 성인

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의 사회적 지지의 양방향성과 지지의 내용에 따라 부모의 생활만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연구결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회적 지지의 내용과 방향성에 초점을 둔다면 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자원을 주고 받는 자원이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며, 주고 받는 자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이 중년기 부모의 생활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자녀와의 자원이전을 제공과 수혜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여 노인의 생활 만족을 분석한 연구들(이형실, 2003; 김은경, 2002)도 있으나 노후준비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노후준비를 고려하여 생활 만족도에 대한 연구(김성령, 2010)도 있으나 자녀와의 자원이전의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안현선 외, 2009). 따라서 중년기 부모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자녀와의 자원이전과 노후준비에 대한 부분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중년기 부모는 자녀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년기의 노후준비는 노후의 생활에 대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자녀의 부양부담으로 인하여 노후준비가 어렵기 때문에 중년기 부모의 생활 만족도에 자녀와의 자원이전과 노후준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와의 자원이전과 부모의 노후준비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자녀와의 경제적 자원 제공/수혜와 도구적 자원 제공/수혜, 정서적 지지 및 노후준비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생활만족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이를 근거로 중년기 부모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생활 만족도

1) 생활 만족도의 개념

생활 만족도는 생활전체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로서 이는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개인의 정신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Medley, 1976). 또한 생활 만족은 노인을 포함한 모든 연령 계층에게 삶의 궁극적 목적이자 성공적인 노화의 지표라 할 수 있다(정영주, 1999). Neugarten(1961) 등은 생활 만족이란 매일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였다고 느끼고, 긍정적 자아상을 지니고, 자신을 가치 있다고 여기고,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며, 생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만족이라고 정의하였다. 생활 만족도는 자신의 생활경로를 통해 자신의 삶의 목표가 얼마나 충족되었는가에 대한 주관적 감정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김원배(2009)는 생활 만족도란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활동과 자원으로부터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개인의 기대와 현실적 보상 사이의 일치 정도이며,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상태로서,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개인 자신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의 긍정적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즉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인생 목표나 요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말한다(권중돈·조주연, 2000). 결국 삶의 만족도는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 간의 충족의 합치 여부에서 오는 주관적 만족감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환경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생활의 역사를 통해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감정이다(정재훈, 2010). 생활 만족도란 결국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간의 합치에서 오는 주관적인

만족감으로서 그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환경적 여건 뿐만 아니라 생활의 역사를 통해서도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감정이다(김은경, 2002).

생활 만족도란 행복한 삶에 대한 만족 정도라는 개념 외에 삶의 만족도, 삶의 질, 행복감, 노년기의 적응 등의 개념들과 혼용되어 사용하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삶의 질에 대해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나 가치체계 내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인지며 자신의 목표, 기대, 기준, 관심사와 관계가 있다”(WHOQOL Group, 1993)고 정의 하고 있다(김미령, 2012). 또한, 행복감은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즉, 주관적 삶의 만족이 중요하다(전경숙·정태연, 2009).

중년기 세대는 노년기의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 노후와 질병 및 죽음에 관한 문제, 직장 및 사업에 관한 문제, 부부간의 문제, 부모자녀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들에 봉착하고 이를 극복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심리적 변인이 행복과 삶의 의미이다(박준성·정태연, 2011). 노인이 갖는 삶의 만족도는 한 개인이 노화되어간다는 현실에 적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상태, 즉,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박성연·최혜경, 1985).

노인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배우자, 자식, 친척 및 친구 등과 같은 의미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생활 만족도를 통하여 전반적인 노인의 삶의 질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하다(허준수, 2004). 위와 같이 생활 만족도는 삶의 질, 삶의 만족도와 같이 혼용되어 사용하지만 자신의 생활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인간의 삶의 질과 관련된 대표적인 측정 도구라 할 수 있다.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문제는 모든 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기 때문에 항상 관심이 모아지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강이주,

2008). 노년기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중년기의 생활 만족도는 성공적인 노화와 연결되며, 이들의 생활 만족도 향상은 노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중년기에 있어서 생활 만족도 향상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2)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자녀와의 자원이전

부모와 자녀 간의 자원이전 행동과 부모의 생활 만족의 관계를 연구한 연구들은 60세 이상의 부모를 대상으로 노부모가 자원을 이전 받는 것과 생활 만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선형·이연숙(1997)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제 생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자녀들로부터의 경제적 자원이전은 노인의 경제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반면, 신화용·조병은(2001)은 남편의 연령이 70세 이하이며, 은퇴 후 임금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서울에 사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생활 만족도 연구에서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실(2003)은 농촌에 거주하는 혼자 또는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생활 만족도를 분석하였는데, 이들의 생활 만족도는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때와 정서적 지원을 수혜 받을 때 생활 만족도가 높았으며, 도구적 자원을 제공할 때는 생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 간의 자원 교환이 부모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들도 있다. 김정석·김익기(2000)는 전국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세대 간 지원 교환의 형태와 노인들의 생활 만족도를 분석하였는데, 자녀와의 자원이전이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기만 하는 부모에 비해 자녀와 자원이전을 주고받는 부모의 생활 만족도가 높고, 자원이전을 주지도 받지도 않은

부모는 생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에게 지원만 하는 부모들도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기만 하는 부모보다 생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효연(2009)은 일본 오사카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자녀와의 지원 교환 형태에 따른 생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도구적 자원과 정서적 지지에서 자녀와의 자원이전을 주고 받는 독거 노인이 자녀로부터 수혜는 적게 받고, 제공을 많이 하는 독거노인보다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원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선행연구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김효정·김명자(1995)는 서울시와 하남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남녀 노인으로 적어도 1명 이상의 기혼자녀를 가진 노부모를 대상으로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결과 성인 자녀와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숙(2005)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단독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최현식·하정철(2012)은 2008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대해 연구한 결과 비동거 자녀와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면 자녀와의 자원이전에서 경제적인 자원이전과 도구적인 자원이전은 서로 주고받을 때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는 부모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노후준비

노후준비는 생활만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노후준비를 잘 한 경우 생

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원배(2009)는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연구 결과 노후 경제 대책을 세운 노인들의 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고, 안현선 외(2009)는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35세에서 65세 미만의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후준비도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령(2010)은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주의 가치관, 노후준비도, 생활 만족도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노후준비도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고, 박선희(2010)도 2009년도 서울복지패널을 이용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삶의 질도 높다고 하였다. 또한, 정순돌·이선희(2011)는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의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 삶의 만족도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2008년 자료 분석 결과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김미령(2012)은 국민연금공단의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의 삶의 질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노후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 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3) 연령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연령에 따른 생활 만족도의 차이는 일관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선희·이연숙(1997)은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 생활 만족도는 낮아진다고 하였고, 주유선(2008)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임소진·어성연(2011)은 서울 및 경기 지역,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의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만 40세부터 64세까지의 중년기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삶의 질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과 삶의 질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연령이 낮을수록 삶의 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순돌·이선희(2011), 최현식·하정철(2012)도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반면, 허준수(2004)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거주 노인들의 생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 만족도는 낮다고 하였다. 이은아(2007)는 만 40-59세 사이의 전일제 직업에 종사하며 적어도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생활 만족도 연구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하였다.

(4) 교육 수준

교육수준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교육수준과 생활만족이 정적인 관계있다고 보았다. 권중돈·조주연(2000)은 대전광역시의 74개 행정동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임창희(2004)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 만족도를 분석하였는데, 고등학교 이하보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 수준에서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간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여러 선행연구들에서(김정석·김익기,2000; 허준수, 2004; 김은아, 2007; 주유선, 2008; 정순돌·이선희, 2011; 임소진·어성연, 2011; 최현식·하정철, 2012)도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건강 상태

건강상태는 생활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여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연·최혜경(1985)은 서울시에 거주

하는 만 60세 이상의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 연구에서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생활 만족도는 높다고 하였고, 정영주(1999)는 도시지역 노인의 생활 만족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또 권중돈·조주연(2000)의 연구에서 일상 생활 동작 능력이 좋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정순돌·이선희(2011)은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연구들(임소진·어성연, 2011; 허준수, 2004; 김원배, 2009; 최현식·하정철, 2012)도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장명숙·박경숙(2012)은 서울 및 경기도에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6) 가구 소득

가구소득은 선행연구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희·이연숙(1997)은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경제 생활 만족도는 높다고 하였고, 임창희(2004)의 연구 결과도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김은아(2007)의 연구 결과 소득에 따른 생활 만족도의 차이에서 401만원-500만원 이하의 경우에 200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김원배(2009), 김성령(2010), 정순돌·이선희(2011), 최현식·하정철(2012)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고, 박미석·김미영(2012)은 한국고령화연구패널 2008년도 2차 자료를 사용하여 중년기 기혼 남녀의 가정 자원 수준 및 집단별 생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많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7) 소득 활동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취업 여부, 소득 활동 여부는 생활만족에 의미 있는 영향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정순돌·이선희(2011)은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8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한 노인일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권중돈·조주연(2000)의 연구 결과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도 연구에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고, 김미령(2012)도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삶의 질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 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반면 이선희·이연숙(1997)의 60대 이상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취업 여부에 따른 경제 생활 만족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 자녀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자녀의 수는 부모의 생활만족에 대한 연구에서 서로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석·김익기(2000), 정순돌·이선희(2011)의 연구 결과 자녀가 많을수록 생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배(2009)는 자녀수에 따른 생활 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자녀수가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7명 이상인 노인들의 생활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김은경(2002)은 경상남도 함안군의 읍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자녀수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위의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기혼자녀와의 자원이전과 노후준비를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통제변수로 중년부부의 특성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2. 자원이전

1) 자원 및 자원이전의 개념

자원은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지만 정확하게 정의된 경우는 드물다. Maloch와 Deacon(1966)은 '자원을 요구 충족을 위해 사용되는 또는 요구 충족의 가능성을 인정받는 수단'으로 정의하였다. Gorss, Crandall과 Knoll(1980)은 자원을 '목표를 달성하고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정의하였으며, Tucker와 Rice(1986)는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자산(asset)'으로 정의 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수단 또는 자산', '사용되는', '목표'의 세 가지 개념이 자원과 관련된 개념임을 알 수 있다(임정빈 외, 1994). 이러한 개념과 관련지을 때 가족 자원이란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수단을 뜻한다. 이러한 가족 자원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가족 자원은 자원의 성질에 따라 인적 자원(human resources)과 비인적 자원(nonhuman resources)으로 분류할 수 있다. Nickell과 Dorsey(1967)는 인적 자원을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능력과 기술·태도·지식·에너지를 들었다. 비인적 자원은 인간 외부에 존재하지만 가족에 의해 통제되고 사용되거나 소유되는 자원으로, 시간·금전·상품·재산·사회시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김외숙·이기영, 2010).

반면, Deacon과 Firebaugh(1998)는 자원의 성격을 기준으로 인적 자원과 물

적 자원으로 분류하였다. 인적 자원은 개인의 특성과 속성을 의미하며, 인간에 내재적이거나 시간 자원과 같이 인간과 떨어져서는 사용될 수 없는 자원이며, 물적 자원은 유형적인 것으로 인간에 외재적이지만 개인이나 가족에 의해 소유되거나 사용과 통제가 가능한 자원이다(임정빈 외, 2002). 도구적 자원과 정서적 자원은 인적자원과 같이 인간에 내재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도구적 자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시간을 다른 가족원을 위한 돌봄이나 가사 운영 및 가정생활에 필요한 청소, 심부름, 세탁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이 소유한 시간과 에너지와 같은 자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서적 자원은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따뜻한 친밀감 같은 개인의 특성에 따른 특별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물적 자원은 경제적 자원(economic resources)과 비경제적 자원(noneconomic resources)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류는 교환 가능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의 여부가 기초가 된다. 경제적 자원이란 개인이나 가계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한 수단이며 유형적인 것으로써 크게 소득과 부로 구분된다. 부는 일정시점에서의 양을 표현한다는 면에서 저장(stock)이며, 소득은 일정기간 동안의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표현한다는 면에서 유량(flow)이다. 따라서 소비에 지출하고 남은 유량 소득은 부의 원천으로서 저장될 수 있으며, 부는 순자산과 동일한 개념으로 흔히 재산이라 부르기도 하며 금융 자산과 실물 자산으로 구성된다(배희선, 1998). 비경제적 자원은 비생산적인 소비와 관련된 것이나 믿음, 종교, 충성심, 자부심과 같은 개인적 특성으로 구성된다(임정빈 외, 2002). 개인에게는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목적을 위해 쉽게 사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측정, 구매, 교환 그리고 다른 재화로 전환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Deacon과 Firebaugh(1998)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분류 개념을 따르고자 한다. 특히 물적자원으로서 경제적 자원을, 인적 자원으로서 도구적 자원과 정서적 자원의 개념을 적용하고자 하며, 각각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될 수 있다. 경제적 자원은 생활비, 사업자금, 주택관련, 내구재 구입, 단순 증여 등을 위한 금전이나 물질과 같은 것이고, 도구적 자원은 의식주 영역과 관련된 집안일이나 가족원 돌보기, 관리영역을 도와주기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의미한다. 또한 정서적 자원은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위로함과 고독감을 줄여주는 친밀감과 같은 관계적인 자원을 의미한다.

자원은 상호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전(transfer), 교환(exchange), 대체(substitute)와 같은 상호대체성(interchangeability)의 특성을 갖고 있다(홍성희 외, 2008). 가정의 자원이전(transfer)은 어떤 특정 자원이 한 가정에서 다른 가정으로 보내지거나 투입되는 것을 의미한다(고선강, 2011).

자원이전은 주체와 기능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 먼저 주체의 측면에서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의 수혜, 가족 및 본인 이외의 집단에 의해 제공되는 것을 공적 이전(public transfer), 개인 및 가족 간에 특별한 반대급부나 수혜자격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적 이전(private transfer)이전이라 한다(김기덕·손병돈, 1995).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은 경제자원의 이전에 한정된 개념이며, 부모와 자녀 간에 경제적 자원을 주고 받는 것은 사적 이전의 한 유형이라 하겠다. 기능적 측면에서 자원이전을 분류하면 공간(동거), 시간(시간제공, 돌보기 제공), 금전적 자원(선물, 현금, 기타 금전적 지원)등으로 분류 될 수 있고(고선강, 2005), 금전이나 물질을 공급하는 경제적 이전, 신체적 독립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구적 이전,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정서적 이전으로 분류하기도 한다(김순미·박미려, 2008). 이처럼 사적 이전은 현금·현물이전과 서비스 이전의 두 형태 사이에서 상호 보완과 대체 관계를 이루게 된다(정의신, 2008).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고 도구적 자원을 수혜 받는 것, 자녀가 부모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동시에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 등은 기능적 측면에서 다른 종류의 자원이전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원이전은 이전의 방향과 흐름(flow)에 따라 지원 관계를 쌍방향, 수혜형, 지원형, 무교환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때 경제적 지원은 생활비, 용돈, 선물교환 등 금전과 관련된 원조이며, 정서적 지원은 부모 자녀간의 주고받는 감정적 상호교환으로 인한, 신뢰감, 공평함, 존경심, 애정 등의 관계이고, 도구적 지원은 식사준비, 설거지, 집안청소 등 일상생활에 대하여 가족과의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를 의미하기도 한다(한민아, 2004). 또한 성인 자녀가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부양의 형태를 경제적 자원이전과 도구적 자원이전, 정서적 자원이전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경제적 자원이전은 부모가 필요로 하는 금전이나 물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도구적 자원이전은 부모의 조건에 따라 취사, 목욕, 세탁 등의 보살핌과 시중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서적 자원이전은 부모의 고독감과 불안을 해소하고, 인격적, 정서적 욕구의 충족을 제공하는 것이다(김진, 2008).

세대 간 지원의 기능적 차원은 수단적 및 정서적 지원의 크기로 측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수단적 지원은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말하며, 부양, 가사 및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고 정서적 지원은 가족 구성원간의 친밀감이나 신뢰감을 포함한다(정기원, 2001). 이형실(2003)은 사회적 지원을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지원으로 분류하고, 경제적 지원은 생활비나 용돈 제공, 급한 돈이 필요시의 도움에 관한 것이고, 도구적 지원은 집안 일이나 장보기 도움, 아플 때의 도움, 그리고 정서적 지원은 중요한 일이나 문제 의논하기, 외로울 때 의지하기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자원이전에 관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할 때 자원이전의 범위는 경제적 자원이전과 도구적 자원이전, 정서적 지지로 정리할 수 있다.

2) 자원이전과 관련된 주요이론

부모와 자녀 간 자원이전의 동기를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으로 이타주의

이론과 교환이론이 있다. 이는 자원이전의 동기가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1) 이타주의 이론(Altruism Theory)

이타주의는 타인의 복지 증가를 행위의 목적으로 하는 생각이나 행위를 말한다. 이타주의 이론은 가족을 경제적 의사결정의 단위로 보고 가족구성원의 효용이 자신의 소비와 다른 가족구성원의 효용함수로 구성되는 것이다(박미려, 2007).

Becker(1992)는 가정의 안녕감이 가족원의 안녕감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자녀에게 이타적 부모가 금융자산의 이전을 통해서 그 자녀의 소비를 촉진시켜주면, 그 자녀의 복지가 증진되고 따라서 부모의 복지감도 증진된다는 것이다(고선강, 2005). 이타주의적 부모는 자녀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자녀에게 더 많은 자원을 이전하는 반면 그 자녀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자원이전을 줄이게 된다(김지경·송은경, 2004). 뿐만 아니라 이타주의에 입각한 자녀의 경제적 자원이전은 재능과 같은 인적 자원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지위가 낮은 자녀에게 더 많은 비인적자본의 투자를 유도한다. 그 이유는 이타적 부모의 효용은 자신의 소비뿐 아니라 자녀의 경제적 복지수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부모 자신의 경제적 자원을 희생함으로써 경제적 복지 수준이 낮다고 예상되는 자녀들의 수준을 보상해 주어 자녀 간 경제적 지위의 균등화를 시도하기 때문이다(배희선, 1998). 궁극적으로 가구주의 실용적인 역할이 다른 가족원의 안녕에 있고, 사실상 가구주의 행동은 이타주의에 의해 변화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한 가구의 소득은 가구주와 다른 가구원의 소득의 합인데, 만약 가구주의 소득이 증가하는 행동이 다른 가구원의 소득을 감소시킨다면 그 행동을 그만두고, 가구주의 소득이 감소

하지만 다른 가구원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이 즐겁게 잘 살아야만 이타적 가장도 즐겁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이다(Becker, 1992).

이타심은 특히 부모에게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타주의 이론을 부모로부터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 한정하지 않고, 반대로 자녀로부터 부모에 대한 자원이전으로 확장시켜 생각할 수도 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유는 성인자녀의 효용함수에 노부모의 효용함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가 어느 정도 이상의 생활을 유지해야만 자녀 자신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질병을 앓고 있을 때, 자녀는 부모의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원이전을 통해서 부모의 복지감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자신의 복지감을 증진시키려 할 것이다(고선강, 2008). 소득과 자산이 낮은 부모에게 성인자녀가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다면 이는 이타주의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Koh & MacDonald, 2006).

기혼의 딸과 노부모와의 시간 자원이전을 이타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부모는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자녀를 돕는 시간을 제공하며 이것이 자녀의 복지를 높이고 그 결과 부모의 복지도 높아지게 된다. 한편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복지를 위하여 보살핌 시간을 제공하며 이를 통하여 부모의 복지가 높아지면 자녀의 복지도 높아진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보살피는 시간은 이타주의 측면에서 효용을 높이는 특성을 갖게 되며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시간이 배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한지수·홍공숙, 2007).

(2)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교환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비용과 보상의 교환에 의하여 설명하는 사회 이

론이다. 사회학에서 교환론의 출현에 기여한 학자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람들 중의 하나는 바로 George Homans이다. Homans는 사람들은 보상받는 행동을 학습하고 반복하는 반면, 처벌받는 행동은 회피하며, 보상을 얻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킨다고 하였다. 즉 사회적 행동은 유사한 상황에서 과거의 강화경험이 행동의 주요 결정요인이 되는 강화의 조건에 의하여 형성되며, 또한 사람들은 보상의 가치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반면 Blau는 사회적 교환을 타인들이 가져다 주는 보상에 따라 행동을 취하는 특정 유형의 교류라고 정의하였고, 사람들이 서로 보상을 많이 교환하면 할수록 호혜성에 대한 의무가 나타나며, 이러한 호혜성의 규범이 후속 교환행위의 지침이 된다. 이처럼 의무와 보상이 호혜적이면 서로 신뢰하게 되면서 계속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교환론은 대인간 교환을 논할 때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빌려온 개념인 보상과 비용 그리고 경제학에서 빌려온 개념인 자원을 사용한다. 보상과 자원은 사회적 관계에서 교환되는 이익을 의미한다. 보상은 관계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는 개인의 기쁨, 만족, 충족으로 정의된다(Thibaut & Kelly, 1959; 가족학이론, 2003, 재인용). 보상은 행동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행위자가 특정행동에 참여할 확률을 증가시키는 어떠한 것도 다 보상에 포함된다. 반면, 자원은 대인간 행동을 통하여 전달되는 물질적이거나 상징적인 모든 상품(Foa & Foa, 1974, 1980)으로, 개인으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Emerson, 1976).

Blau(1964)는 사회적 보상의 여섯 가지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즉 개인의 매력, 사회적 수용, 사회적 인정, 도구적 서비스, 존경/명성, 그리고 순응/권력이다.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자원과 보상은 교환과정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구체적 자원과 보상이다. 반면 애정은 구체적 형태와 상징적 형태 두 가지 모두로 교환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정도의 구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상대방에 대한 애정의 표현으로 구체적 행동과 물질적

인 선물을 둘 다 할 수 있다.

교환이론에 따르면 자원의 제공자가 자원이전을 이용해서 자원의 수혜자로부터 미래에 되돌아 올 것으로 예측되는 자원에 대한 흥정을 하는 것이다. 교환이론에서 호혜성은 개인 간의 관계에서 미래에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제공한 자원에 대한 보상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에 바탕을 둔다(고선강, 2008). 일반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자녀의 경제적 수준은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윤택한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것은 미래에 자녀로부터 돌아오게 될 보상에 대한 기대가 포함된 행동일 수 있다(고선강, 2011). 이러한 보상은 즉각적일 수도 있고,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경제적 자원이전뿐만 아니라 동거, 보살핌,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Koh, 2002). 따라서 노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노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지원행위 뿐만 아니라 노부모가 소유하는 자원은 자녀들의 부양을 유인하여 자녀들의 부양행위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은 교환이론에 근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진, 2008). 부모들은 자신에게 더 잘하는 자녀에게 보다 많은 상속을 하려하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다 많이 상속받기 위하여 부모에게 소득이전을 제공하거나 자주 찾아뵙는다는 것이다. 즉, 자산이 많은 부모를 둔 성인자녀들이 부모에게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경우가 많고(Koh & MacDonald, 2006), 상속이 가능한 자산이 적고 병중인 부모들은 자녀의 관심과 서비스를 덜 받는 반면, 상속이 가능한 자산이 많으면서 병중인 부모들은 자녀의 관심과 서비스를 더 많이 받게 된다(Bernheim, 1985).

한편,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이전은 그것이 주는 보상과 비용을 계산하여 보상이 더 클 때 성립되며, 제공자는 수혜자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높은 보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원이전을 한다(고선강, 2002). 부모와 자녀는 서로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자녀 간 형평성은 서로 다른 범주의 자원 교환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는 것

에 따라(김현주, 2005). 부모가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을 받을 가능성은 어릴 때 부모가 했던 양육정도에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고(Cox & Rank, 1992), 부모로부터 수혜와 보상을 많이 받는 자녀에게서 부모부양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이상림·김두섭, 2002). 즉 부모로부터의 좋은 양육을 받았다면 자원이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것은 교환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다

3)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자원의 제공·수혜여부

과거에 자원을 제공(수혜)받은 경험과 현재의 자원 수혜(제공) 경험의 관계는 세대 간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들에서 주요한 관심 주제이다. 이윤정(2010)은 여성가족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어머니와 성인 자녀 간 자원이전 실태를 파악한 결과 부모는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빈도가 높다고 하였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경향성은 부모로부터 제공받은 경우에 높았다. Henrreta 외(1997)는 AHEAD(Asset and Health Dynamics Among the Oldest Old)자료를 이용하여 자녀의 부모에 대한 돌봄 제공에 대해 연구한 결과 과거에 부모가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경우 현재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고선강(2005)은 미국의 위스콘신 종적연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이전 행동에 관한 연구 결과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은 경우에 부모에게 돌보기 또는 가사일을 도울 시간을 제공할 확률이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자녀에 비해 더 높다고 하였다. Koh와 MacDonald(2006)는 WLS(Wisconsin Longitudinal Study)자료를 가지고 성인자녀와 노부모와의 자원이전을 연구

하였다. 과거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은 자녀가 현재 부모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고선강(2008)의 치매부모에 대한 성인 자녀의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 결과 과거에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가사 및 육아도움을 제공한 경우, 자녀의 치매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과 도구적 자원이전의 경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고선강(2012)¹⁾은 2009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된 ‘중년기 부부의 세대 간 자원이전과 노후계획’ 연구과제에서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중년기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이전의 호혜성을 연구하였다. 중년기 자녀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은 경우 부모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고선강(2012)²⁾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를 이용하여 20-44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부모의 결혼 자금 지원과 경제 자원이전에 대해 연구한 결과 부모가 자녀의 결혼 자금을 지원한 경우 자녀가 결혼 후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기혼여성이 양가 부모로부터 양육 지원을 받거나, 가사 노동을 지원받는 경우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을 수혜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경우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혼 여성이 부모로부터 도구적 자원(양육 지원과 가사 노동) 제공과 경제적 자원 제공을 함께 받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기혼 여성이 부모로부터 가사노동을 도움 받은 경우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았다.

(2) 연령

경제적 자원이전에 부모의 연령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때와

1) 중년기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이전의 호혜성

2) 부모의 결혼자금 지원과 경제적 자원이전:20-40대 기혼여성가정을 중심으로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을 때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미·박미려(2008)는 한국 제6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중·고령자의 경제적 자원교류유형 및 교류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연령이 50대와 60대에 비해 70대 이상일 때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이전액이 증가하였으며, 경제적 자원 수혜의 경우도 부모의 연령이 50대와 60대에 비해 70대 이상일 때 수혜 받을 가능성이 높았고, 수혜액은 50대인 경우가 70대인 경우보다 더 많다고 하였다. 이윤정·고선강(2011)은 여성가족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어머니와 성인 자녀 간 자원이전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을 경향이 높았다. 반면, 김진(2008)은 2006년도 고령화 연구패널 제1차 기본조사 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노부모와 성인 자녀간 지원 행위에 관해 연구한 결과 노부모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부모에 대한 성인 자녀의 지원 행위가 감소한다고 하였다.

자녀의 연령은 증가할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다고 한 결과와 이와는 반대로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다고 한 결과가 있다. 자녀의 연령이 경제적 자원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한민아(2004)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부모가 한분이라도 살아있는 30대에서 50대의 남녀를 대상으로 세대 간 지원 교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향이 높았다. 김명자·손서희(2005)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며, 부모님이 두 분 중 한분이라도 생존해 있는 만 30세 이상 60세 미만의 기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기혼자녀(아들·딸)와 부모간의 정서적 결속도에 따른 부양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선강(2012)의 연구도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양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김지경·송은경(2004)은 한국노동패널 5차년도(2002년)자료를 사용하여 따로 사는 부

모와의 자녀 가구의 경제적 교류 여부 및 교류액에 대해 연구한 결과 자녀의 연령이 젊을수록 경제적 자원이전을 많이 한다는 결과를 보여 다른 연구자와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하석철(2010)은 한국노동패널조사 10차년도와 11차 년도를 이용한 부모-자녀간 소득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에게 경제적인 자원이전을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김명자·손서희(2005)의 연구에서는 부모 중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이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민아(2004)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 자녀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기원(2001)은 1998년도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별거하는 성인 자녀와 부모와의 정서적 지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정서적 지지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육 수준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때 교육 수준의 영향을 살펴본 선행 연구 결과,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윤정·고선강(2011)은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무학이나 초등학교 졸업의 경우보다 중졸이나 고졸의 경우에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가능성이 낮다고 하였다.

반면 부모가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는 경우의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김순미·박미려(2008)는 부모의 교육 수준이 전문대졸 이상보다 초졸 이하일 때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김진(2008)은 노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자원이전이

증가한다고 하였고, 하석철(2010)은 부모-자녀 간 소득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가구의 가구주 교육 수준은 중·고등학교 졸업보다 낮은 경우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을 수혜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자녀의 교육 수준은 높을수록 경제적 자원이전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민아(2004)는 세대 간 지원 교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자녀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김진(2008)도 자녀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반면, 김지경·송은경(2004)은 자녀의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에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이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도구적 자원이전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고선강(2008)의 치매부모에 대한 성인 자녀의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 결과 대졸이상의 자녀가 고졸이하의 자녀에 비해 부모에게 도구적 자원을 이전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건강 상태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건강 상태는 경제적 자원이전보다는 도구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윤정·고선강(2011)은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황남희·정주연(2009)은 국민노후보소득보장패널 2차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와 자녀사이에 발생하는 사적 소득 이전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50대 이상의 부모는 주관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건강 상태가 도구적 자원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주로 부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자녀들은 부모에게 도구적 자원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진·한경혜(1997)의 서울시에 거주하는 비동거 자녀의 노부모 부양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의 건강 중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기혼자녀들은 도구적 자원이전을 하였으며, 서소영·김명자(1998)의 연구 결과 시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도구적 자원이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선강(2005)도 부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자녀는 돌보기 제공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김태현·임선영(2004)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20~30대 자녀를 둔 40~60대 부모, 40~60대 부모를 둔 20~30대 미혼·기혼자녀를 대상으로 생활 교류 실태를 살펴본 연구에서 부모의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이전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민아(2004)는 부모의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서로 도구적 자원이전을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부모와 자녀가 도구적 자원이전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부모에게 자녀가 도구적 자원이전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기원(2001)의 연구 결과 부모의 수단적 일상 수행 능력이 낮을수록 정서적 지지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정서적 지지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5) 소득

소득이 자원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주로 경제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미·박미려(2008)의 연구 결과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김태현·임선영(2004)은 부모의 소득이 많은 경우에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였다. 손용진(2008)도 부모의 소득이 많고 주관적 경제 상태가 좋을수록 자녀에게 지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 할 때 자원을 제공받는 부모의 소득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강유진·한경혜(1997)의 연구에서 부모의 경제 상태를 수입의 충분 정도에 따라 분석하였는데 부모의 경제 상태가 좋은 집단의 경우 비동거 기혼자녀가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이전의 정도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소영·김명자(1998)의 연구 결과는 시부모의 소득이 낮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의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향이 높았다. 강유진·한경혜(1997)의 연구 결과 비동거 자녀의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이 노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노동패널 6차 자료를 사용하여 성인 자녀와 부모간 경제적 자원 교류를 분석한 김지연(2005)의 연구결과는 자녀의 총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하석철(2010)의 연구도 자녀의 소득이 많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고선강(2012)의 연구 결과는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았고,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자원 수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선행연구들과는 일치하지 않는 소득과 자원이전의 관계를 주장한 연구들도 있다. 김순미·박미려(2008)의 연구는 중·고령자 가구주의 총소득이 많을수록 경제적 자원 제공액과 수혜액이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김지연(2005)의 연구 결과는 자녀의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자원이전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김태현·임선영(2004)은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이전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홍달아기(1998)는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자녀를 둔 55세 이상의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노부모가 지각한 성인 자녀에 대한 감정과 교류에 대한 연구 결과 노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와의 도구적 자원이전의 교류

가 높다고 하였다.

(6) 소득 활동

취업이나 소득 활동은 부모와 자녀 간의 자원이전에 유의미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고선강(2011)은 국민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2차년도 자료(2007)의 자료를 활용하여 40-60대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중년기 가정의 세대 간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에서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즉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윤정·고선강(2011)은 기혼자녀와 어머니의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 결과 어머니가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기혼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았고, 손자녀에 대한 돌봄의 가능성은 낮다고 하였다.

(7) 자녀수

자녀수는 경제적 자원이전과 도구적 자원이전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윤선영(2008)은 국민연금연구원의 2005년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 가구의 사적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녀가 있는 가구가 없는 가구에 비해 경제적 자원이전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하석철(2010)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으며, 고선강(2011)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았고,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을 가능성도 높게 나타났다. 고선강(2005)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모에게 도구적 자원을 이전할 확률이 적어진다고 하였다. 정기원(2001)의 연구 결과 따로 살고 있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정서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 자녀성별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제공하는 경우 아들인 경우 더 많았다. 한민아(2004)의 연구 결과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하는 경우는 아들일 때 부모가 경제적 자원을 제공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김순미·박미려(2008)의 연구 결과도 아들에게 가장 많은 경제적 자원제공을 하였다. 김지경·송현주(2008)는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1998년)부터 9차년도(2006년)자료를 사용하여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간의 사적 소득 이전에 대한 연구에서 아들이 딸보다 부모와 경제적 자원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할 경우도 아들이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석철(2010)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분석한 부모-자녀간 소득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결과 딸보다 아들이 부모에게 경제적인 자원을 이전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하였고, 도구적 자원이전에 자녀의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인 고선강(2005)은 아들보다 딸인 경우 부모에게 돌보기 제공을 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9) 자녀 가구의 자녀 현황

자녀 가구의 자녀, 즉 손자녀의 유무는 부모와 기혼자녀 간의 자원이전에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선영(2008)은 손자녀가 없는 노인 가구의 경우에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김지경·송현주(2008)는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가구에 어린 자녀가 있으면 부모와 경제적 자원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경제적 자원이전액 또한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많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고선강(2011)의 연구는 자녀 가구에 자녀가

있을 때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을 가능성이 높았고, 이윤정·고선강(2011)의 연구에서는 기혼자녀에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고선강(2012)은 자녀의 가구에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을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10) 자녀의 취업 여부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자원이전에서 자녀의 취업은 경제적 자원이전, 도구적 자원이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김진(2008)은 2006년도 고령화 연구패널 제 1차 기본조사 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노부모와 성인 자녀 간 지원 행위에 관해 연구한 결과 성인자녀가 취업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노부모에 대한 도구적 자원이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석철(2010)은 자녀 가구의 가구주가 취업했을 때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고, 고선강(2012)의 연구 결과 기혼 여성이 취업한 경우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자원 제공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하였다. 한지수·홍공숙(2007)은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4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노부모와 동거하는 기혼 여성 자녀의 시장 노동 참여 및 참여 시간 결정 요인을 연구한 결과 맞벌이를 하는 경우 자녀에게 부모의 도구적 자원이전이 많아지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부모와 기혼자녀와의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부모와 기혼자녀와의 자원제공(수혜)를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통제변수로 중년부부의 특성과 기혼자녀의 특성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3. 노후준비

1) 노후준비의 개념

노후준비란 노후에 필요한 자원들을 마련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과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이 되기 전에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면 생활수준이 크게 하락하게 될 수 있다. 노후준비는 여러 측면에서 가능하며 연구자마다 다르게 각각의 영역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황승일(2000), 배문조(2009)는 노후준비의 영역을 신체적 준비, 경제적 준비, 정서적 준비, 여가 준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조추용외(2009)는 신체적 준비, 정서적 준비, 경제적 준비, 여가준비로 구분하였다. 또한 안기선(2011)은 경제적 준비, 신체적 준비, 여가준비, 관계적 준비로 노후준비의 영역을 구분하였다.

선진국의 노인들은 젊어서부터 스스로 혹은 국가에서 노후대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제도 도입의 기간이 길지 않고, 소득을 부모나 자식을 부양하는데 지출하여 노후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대다수의 노인들은 준비되지 못한 노후를 맞이함에 따라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거나 혹은 자식이나 정부의 이전소득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다(이선형·김영훈, 2011). 경제적 준비는 노인이 되었을 때 필요한 생활자금과 노후에 기대되는 수입 예산액을 계산하여 경제적인 계획을 세워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과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박창제, 2008). 신체적 준비는 노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삶을 위하여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노인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으며(안기선, 2011), 정서적 준비는 노년기에 정신적 불안에 빠져 여생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중년기의 생활을 원만한 인간관계유지와 긍정적인 생활태도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인격완성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조추용 외, 2009). 노인의 평균수명 연장과 조기퇴직, 핵가족화로 노년기는 일정한 역할 없이 무료하게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러한 시간이 길어지면 고독감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여생을 더욱 뜻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여가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족제도가 핵가족화 되면서 노인 단독세대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세대는 노후대책이 미흡하였고 갑자기 찾아온 고령화 사회와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역할상실과 인간관계가 축소된다. 또한 이들은 배우자, 친지, 친구의 사별, 자녀의 독립, 건강악화 등을 통해 공허감과 허탈감을 경험함과 동시에 노년기 적응능력이 약화되어 정신적 불안에 빠지기 쉬운 시기이므로 중년기부터 관계적 노후준비가 필요하다(안기선, 2011).

2009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후준비 상황을 살펴보면 노후준비가 되어있다는 응답은 39.0%이며, 노후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61.0%로 나타났다. 주된 노후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이 2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예금·적금이 28.0%, 기타 공적연금·사적연금이 22.9%순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가 안된 고령자 대부분이 노후준비가 안된 이유에 대해 준비능력이 없음이 54.4%로 절반을 넘었고, 자녀에게 의탁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5%로 나타났다(통계청, 2010). 이처럼 우리나라는 노후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며, 노후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하고 있지만 연금수령액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통계청에 따르면 55-79세 인구의 연금수령 여부 조사 결과 45.8%가 지난 1년간 연금을 수령한 적이 있으며 그중 남자는 51.1%, 여자는 41.1%가 연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령액은 38만원으로 연금수령자의 82.8%가 50만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10만원 미만을 받는 경우가 43.4%로 가장 많았다.

손경진(2011)은 2009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제 3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사용하여 가구주 연령이 44세-64세까지의 중년기 가계의 노후준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49.9%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생활의 준비 방법의 1순위는 근로활동이 35.4%였고 다음으로 본인·배우자의 공적연금이 35.2%, 일반적금 및 예금이 12.4%, 부동산 투자, 개인연금, 퇴직금(퇴직연금), 사적보험, 가족 생활비·용돈, 배우자소득, 유산 주식·채권수익등으로 나타났다. 노후 생활 준비 방법 2순위는 본인·배우자의 공적연금이 34.4로 가장 높았으며, 근로활동이 19.4%, 부동산투자 13.8%, 일반적금·예금이 13.2%로 나타났다.

박창제(2008)는 2007년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45세에서 59세 사이의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에서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 비율이 74.4%로 나타났고, 준비 방법은 공적연금이 49.3%,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이 23.8%, 사적연금 16.2%, 부동산 운용 6.3%, 퇴직금 3.7%, 주식, 채권 등이 0.6%, 기타가 0.1%순으로 나타났다.

중년기의 노후준비는 노후 생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하다(박창제, 2008). 따라서 중년기 성인들은 자신의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노후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배문조, 2011).

2)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자녀와의 자원이전

이선형·최은희(2010)는 충남에 거주하는 55-64세 예비노인을 대상으로 한 안정적 노후준비 가계의 특성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녀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김순미·고선강(2012)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중 한분 이상 생존해 있으며, 자녀 중 한 명 이상 결혼해서 분가한 50-60대 성인을 대상으로 중년기 가정의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과 노후 생활 준비에 대해

연구한 결과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경우 제공하지 않은 경우보다 노후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는 경우는 받지 않는 경우에 비교하여 노후준비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령

연령은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강유진(2005)은 한국 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준비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홍성희·곽인숙(2006)은 40대 이상의 중년기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은퇴 계획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준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30-59세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전귀연·배문조(2010)는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베이붐 세대를 대상으로 노후준비에 대해 분석한 김성령(2010)은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준비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3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사용하여 중년기 가계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손경진(2011)은 가구주 연령이 44-54세인 가계보다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천안지역 공단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유인순·최수일(2012)은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 김혜진(2012)은 국민연금연구원의 3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40-60세 중년층의 노후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신체적 준비는 잘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준비 행동은 연령이 적을수록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육 수준

선행연구에서 교육 수준은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 박창제(2008)는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45세에서 59세 사이의 중·고령자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교육 수준이 정적인 영향을 미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2004년의 대구광역시 노인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를 이용하여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이신영(2009)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선형·최은희(2010)는 무학/초졸에 비해 고졸이상의 교육 수준에서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김성령(2010)의 연구 결과에서도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준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국노동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한 중고령 취업자의 노후준비를 분석한 안기선(2011)의 연구 결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인순·최수일(2012)도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혜진(2012)도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준비행동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건강상태

건강 상태의 경우 선행 연구들이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신영(2009)의 연구결과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노후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귀연·배문조(2010)의 연구 결과는 건강 상태가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노후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형·최은희(2010)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보다 보통이나 좋은 사람이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안기선(2011)의 연구 결과 또한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노후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가구 소득

가구 소득은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 거주하는 20대에서 60대의 현재 직장을 갖고 있는 남·여를 대상으로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배문조·진귀연(2004)의 연구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신영(2009)은 월 소득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김성령(2010)의 연구 결과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문조(2011)는 대구경북지역의 40-59세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중년기의 노후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와 여가 준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경진(2011)은 가계의 연간 총소득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김혜진(2012)의 연구 결과도 소득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준비행동과 정적인 영향을 미쳐 소득이 많을수록 노후준비도 잘 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김순미·고선강(2012)도 가구소득은 노후생활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6) 소득 활동

소득 활동은 선행연구에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박창제(2008)의 연구 결과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선형·최은희(2010)도 직업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반면 김혜진(2012)은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신체적 준비는 잘하고 있지만, 경제적 준비는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준비도가 더 높았다.

(7) 자녀수

자녀수는 선행연구에서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신영(2009)의 연구 결과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손경진(2011)과 김영채(2007), 유인순·최수일(2012)의 연구에서 자녀수는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부모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녀와의 자원이전을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통제변수로 중년부부의 특성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중년기 부모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기혼자녀간의 자원이전, 부모의 노후준비와 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 자원이전, 도구적 자원이전, 정서적 지지, 노후준비, 생활 만족도를 분석하고, 자원이전과 노후준비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 기혼자녀 간 자원이전, 부모의 노후준비 및 생활 만족도는 어떠한가?

둘째, 부모와 기혼자녀의 특성에 따른 부모와 기혼자녀 간 자원이전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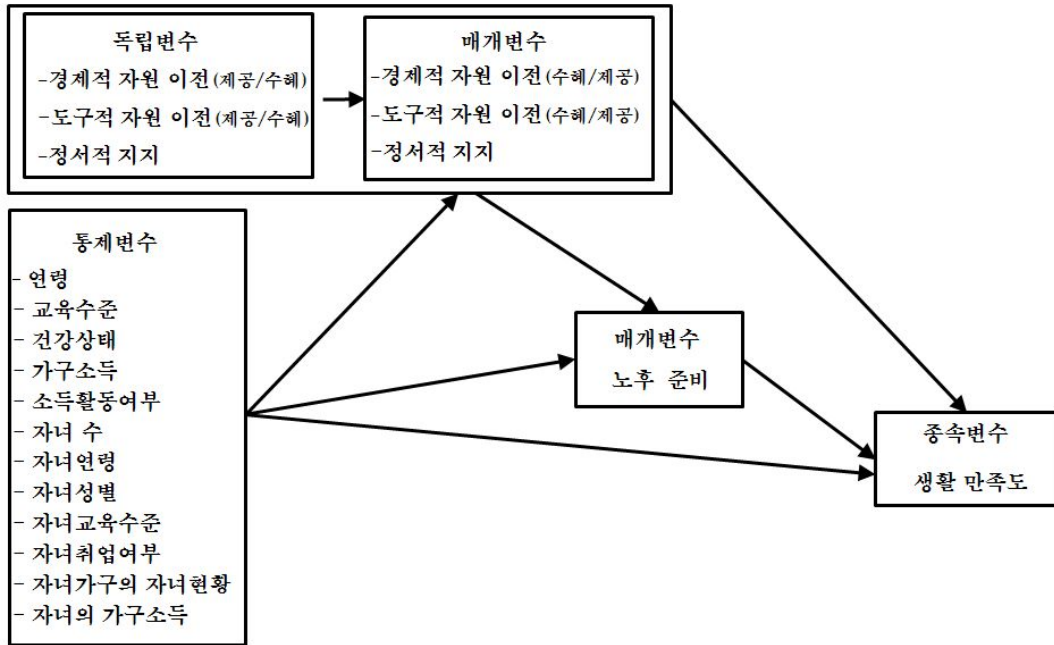
셋째, 부모의 특성에 따른 부모의 노후준비와 생활 만족도는 어떠한가?

넷째, 부모와 기혼자녀 간 경제적 자원이전, 도구적 자원이전, 정서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다섯째, 부모와 기혼자녀 간 자원이전과 부모의 노후준비가 부모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위의 연구모형은 부모의 생활 만족도를 최종 종속 변수로 하여 부모의 노후준비와 부모 자녀 간 자원이전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부모 자녀 간의 자원이전과 부모의 노후준비를 매개 변인으로 하고 독립변수로 부모 자녀 간 자원이전, 통제 변수로 부모와 자녀의 사회인구학변인들을 제시하였다. 즉, 부모와 자녀간의 자원이전은 매개 변수와 독립 변수로 투입되는데 선택된 매개 변수에 따라서 투입되는 독립 변수가 달라진다. 경제적 자원수혜가 매개 변수인 경우, 독립 변수는 경제적 자원 제공, 도구적 자원제공, 정서적 지지가 되며, 경제적 자원제공이 매개 변수인 경우 독립 변수는 경제적 자원수혜, 도구적 자원수혜, 정서적 지지가 된

다.

또한 매개 변수가 도구적 자원수혜인 경우는 독립 변수는 경제적 자원제공, 도구적 자원제공, 정서적 지지가 되며, 도구적 자원 제공이 매개 변수인 경우 독립 변수는 경제적 자원수혜, 도구적 자원수혜, 정서적 지지가 된다. 이외에 정서적 지지가 매개 변수가 되는 경우는 경제적 자원제공, 경제적 자원수혜, 도구적 자원제공, 도구적 자원수혜가 독립 변수가 된다.

2. 자료 및 표본

본 연구의 자료는 2009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된 ‘중년기 가정의 세대 간 자원이전과 노후 계획(kfr-2009-c00010)’ 연구과제에서 수집된 설문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과제의 조사대상은 배우자가 있는 중년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첫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중 적어도 1인이 생존해 있어야 하며 둘째, 자녀 중 적어도 1인이 결혼(이혼, 사별 등)한 상태로 조사대상자 부부와 따로 살고 있고, 셋째, 서울특별시와 전국 6대 광역시(인천, 대전, 부산, 울산, 대구, 광주)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도시의 표본 수는 2005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한 거주 가구수에 비례하여 목표조사대상자 수를 설정하여 표집하였다. 위와 같은 조건을 둔 이유는 연구과제의 본래의 목적이 중년기 부부의 노부모와 자녀에 대한 자원이전을 모두 고려한 연구과제이기 때문에 3세대가 있는 경우에만 연구가 가능하다. 부부와 따로 살고 있는 기혼자녀가 있는 경우를 연구대상으로 한 이유는 독립된 생활단위를 유지할 때 경제적 및 도구적 자원이전이 보다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방법은 설문조사 요원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설문지 작성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지를 조사하게 하였다. 조사 후에는 설문지를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 연구팀으로 우편 송부하거나 수거해 오도록 하였다. 총 2067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는데, 회수된 설문지는 1679부였으며, 부실하게 기재된 50부를 제외한 1629부로 회수율은 81.2%였다.

본 연구는 위의 설문조사 자료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50-60대의 중년기 부모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중년기를 40대에서 60대로 보았을 때 중년기의 특성을 비교적 잘 대표할 수 있으나 40대 경우 표본수가 작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고, 70대는 그들의 자녀가 중년기에 접어든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1208부를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 변수에 관한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3-1>과 같다. 본 연구의 종속 변수는 생활 만족도이며, 매개 변수는 노후준비와 자원이전이다.

<표 3-1>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방법

구분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 변수	생활 만족도			현재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
매개 변수	노후준비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상태 1=매우 부족, 2=약간 부족, 3=보통, 4=약간 충분, 5=매우 충분
	자원이전	경제적 자원이전	제공 여부	- 최근 5년간 자녀에게 1=경제적 도움을 준 적이 있다 0=경제적 도움을 준 적이 없다
			제공액	만원 / 최근 5년간 경제적 도움을 준 총액
			수혜 여부	- 최근 5년간 자녀로부터 1=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0=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수혜액	만원 / 최근 5년간 경제적 도움을 받은 총액
		도구적 자원 이전	제공 여부	-귀하부부가 자녀의 가사일을 1=도와준다, 0=도와주지 않는다
			제공 시간	시간 / 최근 1년 동안의 일주일 평균 시간
			수혜 여부	-자녀로부터 귀하부부의 가사일을 1=도움 받는다, 0=도움 받지 않는다
		수혜 시간	시간 / 최근 1년 동안의 일주일 평균 시간	
정서적 지지	자녀와의 정서적 친밀도 1=전혀 친밀하지 않음, 2=친밀하지 않은 편, 3=보통 4=친밀한 편, 5=매우 친밀한 편			
부모 관련 변수	연령	만 세 / 1=50-54세, 2=55-59세, 3=60세 이상		
	교육수준	교육년수 / 1=전문대졸 이상, 0=고졸이하		
	건강상태	1=매우 나쁨, 2=나쁜 편, 3=보통, 4=건강한 편, 5=매우 건강 / 1=좋은 이상, 0=보통 이하		
	소득활동 여부	1=소득활동 함 0=소득활동 안함		
	자녀수	명 / 1=3명 이상, 0=2명 이하		
	가구소득	함께 사는 모든 가족원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의 합 만원 / 1=300만원 이하, 2=3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3=500만원 초과		
자녀 관련 변수	연령	만 세 / 1=20대, 2=30세-34세, 3=35세 이상		
	성별	1=남성, 0=여성		
	교육수준	교육년수 / 1=대졸 이상, 0=고졸이하		
	취업여부	1=취업, 0=미취업		
	자녀현황	1=미취학 자녀 있음, 2=취학이상 자녀, 3=자녀 없음		
	가구의 소득	최근 1년간 자녀가정의 월평균 소득(만원/월평균) 1=300만원 이하, 2=300만원 초과~500만원 미만, 3=500만원 이상		

생활 만족도는 현재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주관적으로 응답하여 ‘매우 불만족’의 1점부터 ‘매우 만족’의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노후준비는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상태를 묻는 질문에 주관적 준비상태를 ‘매우 부족’의 1점부터 ‘매우 충분’의 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원이전은 경제적 자원이전, 도구적 자원이전, 정서적 지지로 측정하였다. 경제적 자원이전은 경제적 자원 제공, 경제적 자원 수혜로 구분하였다. 경제적 자원이전은 최근 5년간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수혜)한 여부와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수혜(제공) 받은 여부로 측정하였고, 지원 금액은 최근 5년간 경제적 도움을 준(받은) 총액으로 측정하였다. 경제적 자원이전의 내용은 생활비, 사업자금, 주택관련 비용, 부채상환, 의료비, 내구재구입비, 경조사 등 단순 증여의 목적으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가를 측정하였다. 도구적 자원이전은 부모가 자녀의 가사일을 도와주거나 자녀로부터 부모의 가사일을 도움 받고 있는 것으로 측정하였고, 도구적 자원이전 시간은 최근 1년 동안의 일주일 평균 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정서적 지지는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으로 친밀한 상태를 묻는 질문에 ‘전혀 친밀하지 않음’의 1점부터 ‘매우 친밀한 편’의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통제 변수로는 부모관련 변수와 자녀관련 변수를 사용하였다. 부모 관련 변수에는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가구주의 소득활동여부, 자녀수, 가구소득을 사용하였다. 이때 부모의 연령은 조사대상자의 만나이로 측정하였고, 집단 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50-54세, 55-59세, 60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교육수준은 연속변수인 교육년수로 측정하고,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위해 이를 다시 고졸이하와 전문대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건강상태는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이를 다시 보통이하와 좋음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가구주의 소득활동여부는 현재 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와 하고 있지 않다로 분류하여 측정하였고, 자녀수는 연속변수로 측정한 후, 2명이하와 3명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가구소득은 함께 사는 모든 가족원의 최근 1년간의 월평균

소득의 합으로 측정하였고, 3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3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자녀관련 변수는 자녀의 연령과 성별, 취업여부, 자녀현황, 교육수준, 자녀가구의 소득을 사용하였다. 자녀의 연령은 만 나이로 측정하였고, 집단 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20대, 30-34세, 35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자녀의 교육수준은 교육년수의 측정과 함께 고졸이하와 대졸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자녀가구의 자녀현황은 미취학 자녀 있음, 취학이상 자녀, 자녀 없음의 3집단으로 분류하였고, 자녀가구의 소득은 최근 1년간 자녀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연속변수로 측정하고 이를 다시 3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4. 자료의 분석방법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단순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또한 정서적 지지, 노후준비, 생활 만족도, 경제적 자원이전, 도구적 자원이전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과 자녀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경제적 자원이전의 차이와 도구적 자원이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 자녀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정서적 지지,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생활 만족도의 집단 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t-test분석과 일원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추후검증으로 던컨의 다중범위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경제적 자원의 제공과 수혜 여부와 도구적 자원의 제공과 수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적용하였고, 경제적 자원이전액과 수혜액, 도구적 자원이전 시간과 수혜 시간, 정서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자원이전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 검증을 위해서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기혼 자녀를 둔 부모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자원이전과 노후준비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과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였으며 모든 변수가 Tolerance 0.1을 초과하고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이 10미만으로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에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SAS/PC Statistic Program(Version 9.3)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의 기혼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3-2>와 같다.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평균연령은 57세였고, 50-54세가 28.9%, 55-59세가 42.6%, 60세 이상이 28.6%로 55-59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 교육년수가 평균 약 13년으로 고졸이하가 65.5%, 전문대졸이상의 교육수준은 34.5%였다.

건강상태는 평균 약 3.5점으로 보통의 건강 상태였으며, 보통이하가 45.7%, 좋음 이상이 54.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월 평균 소득이 약 484만원이었고, 이를 집단별로 보면 300만원 미만은 36.7%, 3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가 34.3%, 500만원 초과가 29.0%로 300만원 미만의 집단이 가장 많았다. 가구주의 소득활동여부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80.9%, 하고 있지 않다가 19.1%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4배 가량 많았다.

<표 3-2> 기혼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의 일반적인 특성

변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연령	50-54세	349	28.89	57.17세	4.13세
	55-59세	514	42.55		
	60세 이상	345	28.56		
교육수준	고졸 이하	791	65.48	12.55년	2.98년
	전문대졸 이상	417	34.52		
건강상태	보통 이하	552	45.70	3.53	0.68
	좋음 이상	656	54.30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29	36.70	484.25	39.80
	3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401	34.30		
	500만원 초과	369	29.00		
소득활동여부	소득활동 함	965	80.89		
	소득활동 안함	228	19.11		
자녀수	2명 이하	870	72.02	2.23명	0.71명
	3명 이상	338	27.98		
자녀연령	20대	438	36.26	31.35세	4.08세
	30-34세	498	41.23		
	35세 이상	272	22.52		
자녀성별	남성	515	42.77		
	여성	689	57.23		
자녀교육수준	고졸 이하	122	11.05	15.83년	1.54년
	대졸 이상	982	88.95		
자녀취업여부	취업	849	71.28		
	미취업	342	28.72		
자녀의 자녀 현황	미취학자녀	601	49.75		
	취학이상 자녀	80	6.62		
	자녀없음	527	43.63		
자녀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89	36.59	475.66	670.69
	300만원 초과-500만원 미만	287	27.00		
	500만원 이상	387	36.41		

* 결측값(missing data)에 의해 빈도에 따라 빈도의 차이가 있음

자녀수는 평균 2.2명이었으며, 2명이하의 경우가 72.0%, 3명이상이 28%로 대부분의 부모들은 2명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자녀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자녀연령은 평균 31세로 20대가 36.3%, 30-34세가 41.2%, 35세 이상이 22.5%로 30대 초반의 자녀가 가장 많았다. 자녀의 성별은 남성이 42.8%, 여성이 57.2%로 여성인 경우가 더 많았다. 자녀의 교육수준은 평균 약 16년으로, 고졸이하가 11.1%, 대졸이상이 89%로 대부분의 자녀가 대학이상의 교육수준을 보였다. 자녀의 취업여부는 취업한 경우가 71.3%, 미취업이 28.7%로 취업한 자녀가 더 많았다. 자녀가구의 자녀현황은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가 49.8%로 약 절반정도를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자녀가 없음이 43.6%였으며, 취학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6.6%로 가장 적었다. 자녀가구의 소득은 평균 약 476만원이었으며, 300만원 이하가 36.6%, 300만원 초과-500만원 미만인 27.0%, 500만원 이상이 36.4%를 차지하였다.

VI. 연구결과 및 해석

1.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자원이전, 노후준비, 생활 만족도

1)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자원이전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 빈도와 이전액을 살펴본 결과는 <표 4-1>과 같다. 기혼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자원이전 빈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62.2%, 제공하지 않는 비율이 37.8%, 자녀로부터 수혜 받는 경우는 38.9%, 수혜 받지 않는 경우는 61.1%로 나타나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중년기 부모는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수혜 받는 비율은 수혜 받지 않는 경우보다 더 낮았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2차년도(2007) 자료를 분석한 고선강(2011)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55.8%였으며, 제공하지 않는 비율은 44.2%, 자녀로부터 수혜 받는 비율은 56.5%, 수혜 받지 않는 비율은 43.5%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수혜 받는 비율은 더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는 50-60대와 기혼자녀에 한정된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이고, 고선강(2011)의 연구는 연구대상자가 40-60대이며, 자녀의 경우 기혼으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혼의 성인자녀가 다수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미혼의 성인자녀가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 부모는 경제적 자원 제공을 할 가능성은 적어지고,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경제적 자원이전액을 살펴본 결과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한 평균금액은 약 6,177만원이었다. 자녀로부터 수혜 받은 평균금액은 약 981만원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금액이 약 6배 정도 더 많았다.

<표 4-1>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최근 5년)

자녀와의 경제적 자원이전		받음 빈도(%)		받지 않음 빈도(%)		계	χ^2
제공함		318(26.32)		433(35.84)		751(62.17)	9.86 **
제공하지 않음		152(12.58)		305(25.25)		457(37.83)	
계		470(38.9)		738(61.09)		1208(100)	
경제적 자원이전(금액)	빈도	25%	중앙값	75%	평균	표준편차	
제공액(만원)	1208	2000	4000	8000	6177.27	7499.04	
수혜액(만원)	1208	200	500	1000	981.41	1521.93	

** p<.01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도구적 자원이전과 이전시간을 분석한 결과는 <표 4-2>와 같다. 부모가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는 비율은 28.6%였고, 제공받지 않는 비율은 71.4%인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자녀로부터 도구적 자원을 수혜 받는 비율은 6.9%이고, 수혜 받지 않는 비율은 93.1%로 나타나 대부분의 자녀가 부모에게 도구적 자원이전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정·고선강(2011)은 도구적 자원이전 중 어머니가 기혼자녀에게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어머니가 자녀가구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이 19.6%, 제공하지 않는 비율이 80.4%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부모가 도구적 자원이전을 하는 비율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윤정·고선강(2001)은 도구적 자원이전 중 돌봄 서비스만 고려하였고 본 연구는 도구적 자원이전에 가사일의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도구적 자원이전 시간은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시간은 일주일 동안 평균 약 16시간이었고, 자녀로부터 도구적 자원을 수혜 받는 시간은 일주일 평균 약 5시간으로 부모가 자녀보다 약 3배 정도 많은 시간을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

을 제공하고 있었다.

<표 4-2>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도구적 자원이전

자녀와의 도구적 자원이전		받은 빈도(%)		받지 않음 빈도(%)		계	χ^2
제공함		59(4.88)		287(23.76)		346(28.64)	78.55 ***
제공하지 않음		24(1.99)		838(69.37)		862(71.36)	
계		83(6.87)		1125(93.13)		1208(100)	
도구적 자원이전 시간	빈도	25%	중앙값	75%	평균	표준편차	
제공 시간(일주일간 평균)	1208	2	5.5	20	15.66	24.587	
수혜 시간(일주일간 평균)	1208	1	2	5	4.92	6.641	

*** p<.001

<표 4-3>은 도구적 자원이전의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부모가 기혼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 가족원 돌보기가 6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였고, 식생활영역이 23.3%, 주생활영역이 약 8%, 의생활영역이 5.3%, 관리영역이 0.3% 순으로 나타나 부모가 기혼자녀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돌봄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한 강희경·조복희(2005)의 연구결과 대상자의 67%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시가나 친정의 가까운 친인척에 의한 보육유형이라고 한 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혼자녀로부터 부모가 도구적 자원을 수혜 받는 경우는 식생활영역이 39.5%, 주생활영역이 27.2%, 가족원 돌보기와 관리영역이 12.38%, 의생활영역이 8.6%순으로 나타나 기혼자녀는 부모의 식생활영역을 도와주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모는 기혼자녀에게 가족원돌보기에 대한 도구적 자원을 주로 제공해주고 자녀는 부모에게 식생활관련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표 4-3>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도구적 자원이전의 내용

	도구적 자원제공		도구적 자원수혜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의생활영역(다림질, 세탁 등)	18	5.31	7	8.64
식생활영역(식사준비, 특별음식준비, 설거지 등)	79	23.30	32	39.51
주생활영역(청소, 주택손질과 주택보수, 정원과 자동차손질, 집바주기 등)	27	7.96	22	27.16
가족원돌보기	214	63.13	10	12.35
관리영역(장보기, 은행업무 등)	1	0.29	10	12.35
계	339	100	81	100

기혼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지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4-4>와 같다.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지지는 평균 4.04점으로 부모와 기혼자녀의 친밀도는 친밀한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명자·손서희(2005)의 연구결과와 김윤정·최유호(2007)의 연구결과로 나타난 3.47점과 3.58점의 보통수준보다 약간 높은데 그것은 김명자·손서희(2005)는 연구대상의 기혼자녀를 30세 이상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김윤정·최유호(2007)는 20-50대의 기혼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의 자녀연령보다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4-4>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적 지지

	빈도	평균	표준편차
정서적 지지	1129	4.04	0.68

2)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노후준비와 생활 만족도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노후준비와 생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4-5>와 같다. 노후준비는 평균 2.63점으로 보통이하의 점수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

과는 3.0점으로 나타난 김혜진(2012)의 연구결과보다 다소 낮았고, 안현선 외(2009)의 2.45점 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 대상연령이 김혜진의 연구대상보다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되며, 안현선 외(2009)는 중년 여성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노후준비도가 본 연구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표 4-5>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노후준비와 생활 만족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노후준비	1189	2.63	1.050
생활 만족도	1204	3.35	0.656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생활 만족도는 평균 3.35점으로 보통이상의 생활 만족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명숙·박경숙(2012)의 3.10점보다 약간 높고, 2.83점으로 나타난 안현선 외(2009)의 연구보다는 높은 결과인데, 장명숙·박경숙(2012)의 연구는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집에 있는 재가 노인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 연령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부모와 기혼자녀의 특성에 따른 자원이전

1) 부모와 기혼자녀의 특성에 따른 경제적 자원이전

기혼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의 특성에 따른 경제적 자원이전의 분석결과는 <표4-6>에 제시하였다. 부모가 기혼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 부모의 특성 중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가구소득, 자녀수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의 특성 중 연령에 따른 경제적 자원이전을 살펴

보면 50-54세가 62.75%, 55-59세가 66.93%, 60대 이상이 54.49%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고, 50-54의 경우 30.95%, 55-59세가 35.60%, 60세 이상이 51.88%가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가 부모에게 자원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강유진·한경혜, 1997; 김명자·손서희, 2005)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고졸인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58.41%, 전문대졸 이상에서는 제공하는 비율이 69.30%인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김지경·송은경(2004)과 이윤정·고선강(20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건강상태의 경우 부모가 기혼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에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건강상태가 보통이하인 경우에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58.51%, 좋음 이상의 경우에는 65.24%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였다.

가구소득은 제공과 수혜 모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300만원 이하의 집단에서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52.91%, 3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의 집단에서 65.09%, 500만원초과의 집단이 72.27%가 기혼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많이 제공한다는 김태현·임선영(2004)과 김순미·박미려(2008), 손용진(2008)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수혜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경우 39.39%, 3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가 45.14%, 500만원 초과에서 31.56%가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고 있었다.

소득활동여부는 부모의 경제적 자원 수혜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는 36.79%,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47.37%가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없는 경우

기혼자녀가 부모에게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6> 부모와 기혼자녀의 특성에 따른 경제적 자원이전

			경제적 자원제공		χ^2	경제적 자원수혜		χ^2
			제공	비제공		수혜	비수혜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부 모 의 특 성	연령	50-54세	219(62.75)	130(37.25)	13.64 **	108(30.95)	241(69.05)	13.64 **
		55-59세	344(66.93)	170(33.07)		183(35.60)	331(64.40)	
		60세 이상	188(54.49)	157(45.51)		179(51.88)	166(48.12)	
	교육 수준	고졸	462(58.41)	329(41.59)	13.78	303(38.69)	485(61.31)	0.04
		전문대졸 이상	289(69.30)	128(30.70)	***	164(39.33)	253(60.67)	
	건강 상태	보통 이하	323(58.51)	229(41.49)	5.77	221(40.04)	331(59.96)	0.54
		좋음 이상	428(65.24)	228(34.76)	*	249(37.96)	407(62.04)	
	가구 소득	300만원이하	227(52.91)	202(47.09)	31.83 ***	169(39.39)	260(60.61)	14.24 ***
		~500만원이하	261(65.09)	140(34.91)		181(45.14)	220(54.86)	
		500만원초과	245(72.27)	94(27.73)		107(31.56)	232(68.44)	
소득활 동여부	소득활동 함	611(63.32)	354(36.68)	1.62	355(36.79)	610(63.21)	8.69 **	
	소득활동 안함	134(58.77)	94(41.23)		108(47.37)	120(52.63)		
자녀수	2자녀이하	562(64.60)	308(35.40)	7.80	321(36.90)	549(63.10)	5.28	
	3자녀이상	189(55.92)	149(44.08)	**	149(44.08)	189(55.92)	*	
자 녀 의 특 성	연령	20대	300(68.49)	138(31.51)	28.42 ***	128(29.22)	310(70.78)	36.85 ***
		30세-34세	318(63.86)	180(36.14)		201(40.36)	297(59.64)	
		35세이상	133(48.90)	139(51.10)		141(51.84)	131(48.16)	
	성별	남	367(71.26)	148(28.74)	30.83 ***	194(37.67)	321(62.33)	0.62
		여	383(55.59)	306(44.41)		275(39.91)	414(60.09)	
	교육 수준	고졸이하	60(49.18)	62(50.82)	11.15	41(33.61)	81(66.39)	2.17
		대졸이상	635(64.66)	347(35.34)	***	398(40.53)	584(59.47)	
	취업 여부	취업	538(63.37)	311(36.63)	1.22	343(40.40)	506(59.60)	1.75
		미취업	205(59.94)	137(40.06)		124(36.26)	218(63.74)	
	자녀 현황	미취학자녀	375(62.40)	226(37.60)	25.89 ***	274(45.59)	327(54.41)	36.41 ***
취학이상 자녀		29(36.25)	51(63.75)	41(51.25)		39(48.75)		
자녀없음		347(65.84)	180(34.16)	155(29.41)		372(70.59)		
소득	300만원이하	248(63.75)	141(36.25)	2.76	116(29.82)	273(70.18)	34.08 ***	
	~500만원미만	198(68.99)	89(31.01)		130(45.30)	157(54.70)		
	500만원 이상	245(63.31)	142(36.69)		192(49.61)	195(50.39)		

* p<.05, ** p<.01, *** p<.001

자녀수는 2명 이하의 경우에 64.6%가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였으며, 3명 이상의 경우는 55.9%가 기혼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수혜의 경우 2명 이하가 36.9%가, 3명 이상의 경우 44.08%가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다고 한 고선강(2011), 하석철(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자녀의 특성에 따른 경제적 자원이전을 살펴본 결과 자녀의 연령은 경제적 자원 제공과 경제적 자원 수혜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가 기혼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20대일 때 67.49%, 30-34세에서 63.86%, 35세 이상에서는 자녀에게 제공하는 비율이 48.90%로 나타나 자녀의 연령이 어린 집단일수록 부모가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았다. 부모의 경제적 자원 수혜의 경우 20대가 29.22%, 30-34세가 40.36%, 35세 이상에서 51.84%가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한민아(2004), 김명자·손서희(2005), 고선강(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자녀의 성별은 자녀가 아들인 경우에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71.26%, 딸인 경우에 55.59%로 아들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한민아(2004), 김순미·박미려(2008)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자녀의 교육수준이 고졸이하인 경우 49.18%, 대졸이상이 64.66%의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김지경·송은경(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였다. 자녀가구의 자녀의 현황은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제공이 62.40%, 취학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36.25%, 자녀가 없는 경우 65.84%로 자녀가 없는 자녀가구에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경제적 자원이

전의 여부가 최근 5년 이내의 자원이전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자녀가구에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의 결혼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 자원이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취학이상의 자녀에 비해 미취학 자녀가 있는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자녀가구에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와 경제적 자원이전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김지경·송현주(200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부모가 기혼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하는 경우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가 45.59%, 취학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51.25%, 자녀가 없는 경우 29.41%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구의 자녀연령이 많은 경우 그 자녀의 연령 또한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자녀의 연령이 많은 경우 부모가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한민아(2004)와 김명자·손서희(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녀가구의 소득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집단에서 29.82%, 301만원-500만원미만에서 45.30%, 500만원 이상에서 49.61%가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고 있었다. 이는 자녀의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강유진·한경혜(1997), 김지연(2005), 하석철(2010), 고선강(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모의 연령이 55-59세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상태가 좋을 때, 가구소득이 많은 경우, 자녀수가 2명이하인 경우였다. 자녀의 연령은 어린 집단일수록, 아들인 경우, 자녀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자녀가구에 자녀가 없는 경우에 부모가 기혼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는 경우는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가구의 가구소득은 3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때, 자녀수가 많은 경우이며, 자녀의 연령이 많은 경우, 자녀가구에 취학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구의 소득이 많은 경우에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고 있었다.

2) 부모와 기혼자녀의 특성에 따른 도구적 자원이전

기혼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의 특성에 따른 도구적 자원이전을 살펴본 결과는 <표 4-7>과 같다. 부모와 기혼자녀간 도구적 자원이전은 부모의 특성 중 건강상태와, 가구소득, 소득활동여부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의 건강상태는 보통이하의 경우 9.06%, 좋음 이상의 경우 5.03%가 자녀로부터 도구적 자원이전을 수혜 받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자녀가 부모에게 도구적 자원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서소영·김명자, 1998; 김태현·임선영, 2004; 한민아, 2004)을 지지하는 것이다. 가구소득은 300만원 이하가 6.53%, 3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가 5.24%, 500만원 초과가 10.03%로 나타나 500만원 초과인 경우에 가장 많은 비율이 자녀로부터 도구적 자원을 수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와의 도구적 자원이전의 교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홍달아기(1998)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가구주의 소득활동여부는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26.74%가 소득활동을 안하는 경우 35.09%가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부모가 소득활동을 안하는 경우 은퇴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아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녀의 특성에 따른 도구적 자원이전을 살펴본 결과 자녀의 연령이 20대인 경우 23.52%가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었고, 30-34세의 경우 32.13%가 35세 이상의 경우 30.51%가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 한민아(2004)의 연구와 다른 결과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민아(2004)의 연구는 자녀의 연령이 30대에서 50대 사이였기 때문에 30대의 자녀에게 도

<표 4-7> 부모와 기혼자녀의 특성에 따른 도구적 자원이전

			도구적 자원제공		χ^2	도구적 자원수혜		χ^2		
			제공	비제공		수혜	비수혜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부모의 특성	연령	50-54세	87(24.93)	262(75.07)	3.31	23(6.59)	326(93.41)	4.79		
		55-59세	155(30.16)	359(69.84)		28(5.45)	486(94.55)			
		60세 이상	104(30.14)	241(69.86)		32(9.28)	313(90.72)			
	교육 수준	고졸	231(29.20)	560(70.80)	0.35	57(7.21)	734(92.79)	0.40		
		전문대졸 이상	115(27.58)	302(72.42)		26(6.24)	391(93.76)			
	건강 상태	보통 이하	170(30.80)	382(69.20)	2.31	50(9.06)	502(90.94)	7.60		
		좋음 이상	176(26.83)	480(73.17)		33(5.03)	623(94.97)		**	
	가구 소득	0-300만원이하	118(27.51)	311(72.49)	2.57	28(6.53)	401(93.47)	6.74		
		~500만원이하	110(27.43)	291(72.57)		21(5.24)	380(94.76)		*	
		500만원초과	109(32.15)	230(67.85)		34(10.03)	305(89.97)			
소득활 동여부	소득활동 함	258(26.74)	707(73.26)	6.34	69(7.15)	896(92.85)	1.60			
	소득활동 안함	80(35.09)	148(64.91)	*	11(4.82)	217(95.18)				
자녀수	2자녀이하	256(29.43)	614(70.57)	0.93	53(6.09)	817(93.91)	2.95			
	3자녀이상	90(26.63)	248(73.37)		30(8.88)	308(91.12)				
자녀의 특성	연령	20대	103(23.52)	335(76.48)	9.06	26(5.94)	412(94.06)	13.45		
		30세-34세	60(32.13)	338(67.87)		*	25(5.02)		473(94.98)	**
		35세이상	83(30.51)	189(69.49)		32(11.76)	240(88.24)			
	성별	남	128(24.85)	387(75.15)	5.58	35(6.80)	480(93.20)	0.01		
		여	214(31.06)	475(68.94)		*	48(6.97)		641(93.03)	
	교육 수준	고졸이하	26(21.31)	96(78.69)	2.66	12(9.84)	110(90.16)	2.64		
		대졸이상	278(28.31)	704(71.69)		59(6.01)	923(93.99)			
	취업 여부	취업	259(30.51)	590(69.49)	7.12	59(6.95)	790(93.05)	0.10		
		미취업	78(22.81)	264(77.19)	**	22(6.43)	320(93.57)			
	자녀 현황	미취학자녀	225(37.44)	376(62.56)	52.39	43(7.15)	558(92.85)	10.34		
취학이상 자녀		26(32.50)	54(67.50)	***		12(15.00)	68(85.00)		**	
자녀없음		95(18.03)	432(81.97)			28(5.31)	499(94.69)			
소득	300만원이하	101(25.96)	288(74.04)	7.94	34(8.74)	355(91.26)	1.65			
	~500만원미만	73(25.44)	214(74.56)		*	18(6.27)		269(93.73)		
	500만원 이상	131(33.85)	256(66.15)			27(6.98)		360(93.02)		

* p<.05, ** p<.01, *** p<.001

구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수혜의 경우 자녀연령은 20대가 5.94%, 30-34세가 5.02%, 35세 이상이 11.76%로 자녀의 연령이 높은 경우 부모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자녀의 성별은 아들인 경우에 24.85%가 딸인 경우에 31.06%의 부모가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들보다는 딸에게 도구적 자원을 더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도구적 자원의 경우 가사일을 포함한 손자녀 돌봄에 대해 도움을 주는 것으로 가사일과 자녀돌봄이 주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일로 여겨짐을 고려할 때 딸의 가사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자녀의 취업여부는 자녀가 취업한 경우 30.51%, 미취업한 경우의 22.81%가 부모가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의 자녀가 시장노동에 참여하여 맞벌이를 하는 경우 부모의 도구적 자원 제공이 많아진다고 한 한 지수·홍공숙(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자녀가구의 자녀현황은 제공과 수혜에서 모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37.44%, 취학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32.50%, 자녀가 없는 경우 제공이 18.03%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에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기혼자녀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어린자녀를 돌보기 위한 도구적 자원이 제공되어 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지원서비스 효율화 방안의 연구에서 서울, 경기 수도권에 거주하는 취업부모중 보육시설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결방법으로 조부모 등 친인척의 비율이 38.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홍승아 외, 2010). 도구적 자원을 부모가 수혜 받는 경우 자녀의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가 7.15%, 취학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15.00%, 자녀가 없는 경우 5.31%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이 높은 경우와 취학이상의 자녀가구에서 도구적 자원을 수혜 받는 비율이 높은 것은 기혼자녀의 자녀가 연령이

높을 경우 자녀의 연령과 그 부모의 연령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부모의 연령이 많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가구 소득의 경우 300만원 이하에서 25.96%, 300만원 초과-500만원 미만에서 25.44%, 500만원 이상에서 33.85%의 부모가 기혼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많은 경우 자녀의 근로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맞벌이의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며 이러한 경우에 자녀가 부모가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부모가 기혼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 부모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자녀의 연령이 30-34세의 경우, 딸일 때, 자녀가 취업한 경우, 자녀현황에서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구의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부모가 기혼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였다. 자녀로부터 도구적 자원을 수혜 받는 경우는 부모의 소득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많은 경우, 자녀가구에 취학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부모는 자녀로부터 도구적 자원을 수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모와 기혼자녀의 특성에 따른 정서적 지지

기혼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의 특성에 따른 정서적 지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4-8>에 제시하였다.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특성에 따른 정서적 지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건강상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상태가 보통이하인 경우 정서적 지지가 평균 3.94점이었고, 건강상태가 좋음 이상인 경우에 4.13점으로 건강상태가 더 좋은 경우에 정서적 지지의 정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낮을수록 정서적 지지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정기원(200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

<표 4-8> 부모와 기혼자녀의 특성에 따른 정서적 지지

범주변수		빈도	평균	t/F값	D	
부모의 특성	연령	50-54세	323	4.07	1.22	
		55-59세	480	4.01		
		60세 이상	326	4.06		
	교육 수준	고졸	735	4.04	0.07	
		전문대졸 이상	394	4.04		
	건강 상태	보통 이하	515	3.94	-4.54 ***	
		좋음 이상	614	4.13		
	가구 소득	300만원이하	404	4.03	0.32	
		300만원초과-500만원이하	379	4.07		
		500만원초과	313	4.05		
소득활 동여부	소득활동 함	909	4.04	0.71		
	소득활동 안함	210	4.08			
자녀수	2명이하	809	4.00	1.04		
	3명이상	320	4.06			
자녀의 특성	연령	20대	413	4.06	0.94	
		30세-34세	160	4.01		
		35세이상	256	4.08		
	성별	남	477	3.96	3.75 ***	
		여	649	4.11		
	교육 수준	고졸이하	118	3.84	-3.45 ***	
		대졸이상	943	4.07		
	취업 여부	취업	793	4.01	2.27 *	
		미취업	322	4.12		
	자녀 현황	미취학자녀	556	4.09	2.46	
취학이상 자녀		79	3.96			
자녀없음		494	4.01			
소득	300만원이하	369	3.95	9.56 ***	B	
	300만원초과-500만원미만	273	4.11		A	
	500만원 이상	371	4.15		A	

* p<.05, *** p<.001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며, 수단적 일상수행능력(LADL)은 일상생활 용품이나 약사러 가기, 전화걸기, 버스나 전철 혼자 타기 그리고 가벼운 집안일 하기 등의 4가지 동작을 포함하고 있다.

자녀의 특성에 따른 정서적 지지는 성별과 교육수준, 취업여부, 소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의 성별이 아들인 경우 3.96점, 딸인 경우 4.11점으로 딸과의 친밀도가 아들보다 조금 더 높았다. 자녀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3.84점, 대졸이상인 경우 4.07점으로 대졸이상인 경우 더 높은 정서적 지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경우 자녀와의 친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자녀의 취업여부는 취업한 경우가 4.0점, 미취업의 경우 4.1점으로 미취업의 경우에 정서적 지지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하지 않은 경우 부모와 더 빈번하게 교류할 가능성이 높고, 교류가 많을수록 부모와 기혼자녀 간 친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자녀가구의 소득의 경우 300만원 이하가 4.0점, 300만원 초과-500만원 미만인 경우 4.1점,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4.2점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정서적 지지도 높았다. 추후 검증에서는 300만원 이하의 집단과 300만원 초과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기혼자녀와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자녀가 딸인 경우, 자녀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경우, 자녀가 취업한 경우, 자녀가구의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와 생활 만족도

1)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9>와 같으며,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가구소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은 50-54세의 노후준비도는 2.4점이었고, 55-59세는 2.7점, 60세 이상의 노후준비도는 2.7점으로 60대가 노후준비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한 선행연구들(홍성희·곽인숙, 2006; 강유진, 2005; 최수일, 2012; 손경진, 2011; 전귀연·배문조, 2010; 김성령, 2010)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표 4-9>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범주변수		빈도	평균	t/F값	D
연령	50-54세	339	2.42	10.19 ***	B
	55-59세	511	2.69		A
	60세 이상	339	2.75		A
교육 수준	고졸	781	2.48	-6.86 ***	
	전문대졸 이상	408	2.91		
건강 상태	보통 이하	541	2.49	-4.13 ***	
	좋음 이상	648	2.74		
가구 소득	0-300만원이하	422	2.24	84.56 ***	C
	300만원초과-500만원이하	394	2.60		B
	500만원초과	335	3.17		A
소득활동 여부	소득활동 함	949	2.61	1.61	
	소득활동 안함	226	2.74		
자녀수	2자녀이하	854	2.62	-0.65	
	3자녀이상	335	2.66		

*** p<.001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교육수준의 경우 고졸이하가 2.5점, 전문대졸 이상이 2.9점으로 전문대졸이상이 노후준비를 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한 여러 선행연구들(박창제, 2008; 유인순·최수일, 2012; 이신영, 2009; 이선형·최은희, 2010; 김성령, 2010; 안기선, 2011)과 같은 결과이다.

건강상태는 보통이하인 경우 노후준비는 2.5점, 좋음 이상이 2.7점으로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노후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귀연·배문조(2010), 안기선(20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가구소득은 300만원 이하가 2.2점, 3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가 2.6점, 500만원 초과가 3.2점으로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노후준비도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많은 경우 노후준비를 할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이신영(2009), 배문조·전귀연(2004), 김성령(2010)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가구소득의 노후준비에 대한 추후검증의 결과 각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의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는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가구소득이 많은 집단일수록 노후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특성에 따른 생활 만족도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특성에 따른 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10>과 같다. 부모의 특성에 따른 생활 만족도는 교육수준, 건강상태, 가구소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졸이하가 3.3점, 전문대졸 이상이 3.5점으로 전문대졸 이상이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권중돈·조주연(2000), 김은아(2007), 최현식·하정철(2012), 김정석·김익기(200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건강상태는 보통이하가 3.2점, 좋음 이상이 3.5점으로 건강상태가 좋을 때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영주(1999), 김원배(2009), 최현식·하정철(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가구소득의 경우 300만원 이하가 3.2점, 3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가 3.3점, 500만원 초과가 3.6점으로 소득이 많은 집단일수록 생활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김성령(2010), 김원배(2009), 최현식·하정철(2012), 임창희(200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고, 추후 검증의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4-10>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특성에 따른 생활 만족도

범주변수		빈도	평균	t/F값	D
연령	50-54세	347	3.35	1.70	
	55-59세	512	3.38		
	60세 이상	345	3.30		
교육 수준	고졸	787	3.28	-5.28 ***	
	전문대졸 이상	417	3.48		
건강 상태	보통 이하	550	3.22	-6.54 ***	
	좋음 이상	654	3.46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428	3.17	48.63 ***	C
	3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398	3.31		B
	500만원 초과	339	3.62		A
소득활동 여부	소득활동 함	961	3.37	-1.68	
	소득활동 안함	228	3.29		
자녀수	2자녀 이하	867	3.36	1.23	
	3자녀 이상	337	3.31		

*** p<.001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이상의 결과를 종합한 결과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부모의 생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부모의 경제적 자원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모의 경제적 자원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4-11>과 같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제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독립변수 중에는 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자원수혜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통제변수는 부모의 가구소득과 자녀연령, 자녀 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는 경우, 부모의 가구소득이 많은 경우,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아들인 경우에 부모는 기혼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았다.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을 때 부모도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결과는 자원이전의 이론 중 교환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빈도가 높다고 한 이윤정(2010)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지 않는 경우보다 수혜 받는 경우에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약 2배 높았다.

부모의 가구소득은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김태현·임선영(2004), 손용진(2008), 김순미·박미려(2008)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자녀 관련 변수 중에는 자녀의 연령과 성별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는

데, 자녀의 연령은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경제적 자원이 전을 많이 한다고 한 김지경·송은경(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표 4-11>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적 자원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경제적 자원 제공 여부		경제적 자원 제공액	
		B	odds Ratio	B	β
독립변수	경제적 자원수혜여부	0.689 ***	1.992	1.019	0.126 ***
	도구적 자원수혜여부	0.320	1.377	0.301	0.019
	정서적 지지	0.128	1.136	0.335	0.056
통제변수	연령	0.049	1.050	0.088	0.091 *
	교육수준	0.038	1.038	0.106	0.078 *
	건강상태	0.129	1.137	0.114	0.019
	가구소득(자연로그)	0.488 ***	1.629	0.815	0.154 ***
	소득활동여부	-0.240	0.787	-0.452	-0.043
	자녀수	0.020	1.020	0.014	0.002
	자녀연령	-0.151 ***	0.860	-0.241	-0.244 ***
	자녀성별	1.147 ***	3.149	2.072	0.256 ***
	자녀교육수준	0.009	1.009	0.026	0.025
	자녀취업여부	-0.324	0.723	-0.547	-0.062
	자녀의 미취학자녀	0.128	1.137	-0.071	-0.009
	자녀의 취학이상 자녀	-0.454	0.635	-1.526	-0.096 *
자녀가구소득(자연로그)	-0.137	0.872	-0.098	-0.017	
상수	-1.434		-0.444		
-2Log Likelihood		1239.222			
Chi-square / F		146.803***		12.42***	
R ²				0.173	

* p<.05, *** p<.001

본 연구에서 측정한 경제적 자원이전의 기간이 5년임을 감안하면 연령이 낮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때 결혼자금의 명목으로 경제적 자원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령이 어린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결혼자금 지원과 경제자원이전에 대해 연구한 고선강(2012)의 연구결과 결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는 비율이 그 이상의 결혼기간의 집단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자녀의 성별은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였다. 딸과 비교하여 부모가 아들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3.1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김순미·박미려(2008), 한민아(200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한 경제적 자원의 액수를 결정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살펴보면 경제적 자원 수혜 여부, 가구소득, 자녀연령, 자녀성별은 경제적 자원 제공 여부를 분석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에서도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낸 변수들이다. 반면 부모의 연령과 교육수준, 자녀가 취학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경제적 자원 제공액을 분석한 회귀분석 모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연령이 높은 경우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자원의 액수도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50대 60대에 비해 70대의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제공액이 높게 나타난 김순미·박미려(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교육수준도 경제적 자원 제공액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원 제공액도 많아졌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소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자녀가구의 자녀현황의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취학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경제적 자원 제공액은 낮아졌다. 이는 자녀 연령과의 연관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자녀가 취학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 자녀연령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녀의 연령이 젊을수록 경제적 자원이전을 많이 한다는 김지겸·송은경(2004)의 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경제적 자원이전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성별, 자녀연령, 가구소득, 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자원수혜 여부와 자녀 현황, 부모연령, 부모교육수준,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성별은 경제적 자원 제공 여부를 분석한 모형에서와 같이 제공액수에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경제적 자원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하면,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한 경우, 부모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가 아들인 경우에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할 확률도 높고 제공액수도 커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자원 제공액수는 커졌으며, 자녀가 취학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의 경제자원 제공액수는 줄어들었다.

(2) 부모의 경제적 자원수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적 자원수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하여 경제적 자원수혜 여부와 수혜액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모형과 다중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표 4-12>에 제시하였다. 경제적 자원 수혜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독립변수 중 자녀에게 주는 경제적 자원제공여부와 정서적 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통제변수로는 부모의 가구소득과 자녀가구의 자녀현황, 자녀가구의 가구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경우에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는 것으로 보아 교환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자금을 지원한 경우 자녀가 결혼 후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고선강(2012)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4-12>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적 자원 수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경제적 자원수혜 여부		경제적 자원수혜액	
		B	odds Ratio	B	β
독립변수	경제적 자원제공여부	0.728 ***	2.071	0.779	0.117 ***
	도구적 자원제공여부	0.111	1.117	-0.110	-0.015
	정서적 지지	0.455 ***	1.576	0.749	0.159 ***
통제변수	연령	0.049	1.050	0.066	0.087
	교육수준	-0.013	0.987	-0.001	-0.001
	건강상태	-0.050	0.952	-0.103	-0.022
	가구소득(자연로그)	-0.247 *	0.781	-0.267	-0.064
	소득활동여부	-0.093	0.911	-0.234	-0.028
	자녀수	0.039	1.040	-0.009	-0.002
	자녀연령	0.055	1.057	0.077	0.098
	자녀성별	-0.190	0.827	-0.221	-0.035
	자녀교육수준	0.035	1.036	0.052	0.064 *
	자녀취업여부	0.174	1.191	0.430	0.061
	자녀의 미취학자녀	0.610 ***	1.841	0.908	0.143 ***
	자녀의 취학이상 자녀	0.365	1.440	0.766	0.061
	자녀가구소득(자연로그)	0.593 ***	1.809	0.729	0.155 ***
상수		-9.883 ***		-10.797	
-2Log Likelihood		1313.201			
Chi-square / F		142.959***		10.47***	
R ²				0.150	

* p<.05, *** p<.001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즉 부모와 친밀한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통제변수 중 부모의 소득은 낮을수록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는 것으로 나타나 시부모의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다고 한 서소영·김명자(1998)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자녀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 중 자녀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와 자녀의 가구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인데, 자녀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자녀가 미취학인 경우에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에게 어린자녀가 있으면 부모와 기혼자녀 간 경제적 자원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김지경·송현주(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이해된다. 자녀가구의 자녀현황은 자녀가구에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경제적 자원 수혜액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자녀에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그러지 않는 경우보다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이윤정·고선강(20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자녀가구의 소득은 높을수록 부모는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 강유진·한경혜(1997), 김지연(2005), 하석철(2010), 고선강(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할 경향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수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의 교육수준이었다. 자녀의 교육수준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혜액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이 증가한다고 한 한민아(2004), 김진(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부모의 경제적 자원 수혜 여부를 분석한 모형에서는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제공여부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수혜액을 분석한 모형에서는 자녀의 가구소득이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액수는 제공하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제공여부는 액수가 적더라도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 정도와 더 연관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부모의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자녀가구에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와 자녀가구의 소득이 높은 경우 부모는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을 확률이 높았다. 또한 경제적 자원수혜여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경제적 자원 수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교육수준으로 자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자원 수혜액은 많아졌다.

부모와 기혼자녀의 경제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자원의 제공과 수혜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제공과 수혜에 모두 영향을 미친 요인은 경제적 자원 제공, 수혜여부와 부모가구의 소득이었다. 경제적자원의 제공과 수혜여부는 둘다 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며, 자녀로부터의 수혜도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 수혜 받을 가능성이 높아 상호 교류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에 부모가구의 소득은 제공과 수혜에 반대의 영향을 미쳐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는 소득이 높을수록 제공할 가능성이 높고 수혜의 경우 부모가구의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았다. 또한 경제적 자원의 제공에만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자녀가 어릴수록, 아들인 경우에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았다. 경제적 자원 수혜에만 영향을 미친 변수는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녀가구에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구소득 높을수록 부모는 자녀

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제공하는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부모와 자녀 모두 가구소득이 제공여부에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2)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도구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부모의 도구적 자원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도구적 자원제공 여부와 도구적 자원 제공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 4-13>과 같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도구적 자원제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독립변수 중 자녀로부터 받는 도구적 자원 수혜 여부였으며 통제변수는 자녀성별, 자녀취업여부, 자녀현황, 자녀가구의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로부터 도구적 자원을 수혜 받는 경우, 자녀가 딸인 경우, 자녀가 취업한 경우, 자녀가구에 미취학 자녀가 있거나 취학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는 기혼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았다.

독립변수들을 살펴보면 도구적 자원 수혜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자녀로부터 도구적 자원을 수혜 받을 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적 자원을 수혜 받지 않는 경우보다 수혜 받는 경우 부모는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교환이론을 지지하였다.

통제변수 중 자녀 관련 변수들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는데 자녀의 성별, 취업여부, 자녀의 자녀(손자녀)현황, 가구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다.

<표 4-13>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도구적 자원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도구적 자원제공 여부		도구적 자원제공 시간	
		B	odds Ratio	B	β
독립변수	경제적 자원 수혜여부	0.117	1.124	0.054	0.025
	도구적 자원 수혜여부	1.906 ***	6.727	0.576	0.140 ***
	정서적 지지	-0.078	0.925	0.030	0.019
통제변수	연령	0.017	1.017	0.007	0.029
	교육수준	-0.028	0.973	-0.019	-0.055
	건강상태	-0.108	0.898	-0.034	-0.022
	가구소득(자연로그)	0.062	1.063	0.024	0.017
	소득활동여부	-0.322	0.724	-0.202	-0.074 *
	자녀수	-0.214	0.807	-0.058	-0.040
	자녀연령	-0.036	0.965	-0.011	-0.042
	자녀성별	-0.667 ***	0.513	-0.187	-0.089 *
	자녀교육수준	0.005	1.005	0.008	0.031
	자녀취업여부	0.744 ***	2.104	0.237	0.103 **
	자녀의 미취학자녀	1.207 ***	3.344	0.563	0.269 ***
	자녀의 취학이상 자녀	0.812 *	2.251	0.252	0.061
	자녀가구소득(자연로그)	0.439 **	1.552	0.112	0.072 *
상수	-3.325 *		-0.408		
-2Log Likelihood		1127.214			
Chi-square / F		132.091***		7.72***	
R ²				0.115	

* p<.05, ** p<.01, *** p<.001

성별의 경우, 부모는 아들보다는 딸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구적 자원이전이 돌보기를 포함한 가사일을 돌봐주는지의 여부임을 생각할 때 아들보다는 딸이 가사일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딸의 가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구적 자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 된다.

자녀의 취업여부는 자녀가 취업한 경우 도구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자녀가 취업한 경우 가사일을 돌볼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취업한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되며, 기혼여성 자녀가 시장노동에 참여하여 맞벌이를 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이전이 증가한다는 한지수·홍공숙(2007)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녀가구의 자녀현황은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와, 취학 이상의 자녀를 둔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였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부모는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아 자녀 관련 변수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취학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부모가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2배 정도 높았다. 이는 자녀의 가구에 자녀를 돌봐주기 위해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녀가구의 소득이 높은 경우 도구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았다. 자녀가구의 소득이 높다는 것은 소득을 위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부모가 자녀가구에 도구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도구적 자원제공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로부터 받는 도구적 자원수혜여부, 자녀성별, 자녀 취업여부, 자녀현황, 자녀가구소득은 도구적 자원 제공여부를 분석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나타낸 변수들이다. 반면 소득활동여부는 도구적 자원 제공 시간을 분석한 회귀분석 모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소득활동여부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때 도구적 자원 제공 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기혼자녀에게 손자녀에 대한 돌봄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한 이윤정·고선강(2011)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고,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여유시간이 많아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구적 자원제공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가구에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로부터 받는 도구적 자원수혜여부, 자녀 취업여부, 자녀성별, 소득활동여부, 자녀가구소득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도구적 자원 제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로부터 도구적 자원을 수혜 받는 경우, 자녀가 딸인 경우, 자녀가 취업한 경우, 자녀가구에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미취학자녀와 취학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도구적 자원 제공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가구에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로부터 도구적 자원을 수혜 받는 경우, 자녀가구의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때, 자녀가 딸인 경우에 도구적 자원 제공시간은 많아졌다.

(2) 부모의 도구적 자원 수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도구적 자원 수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하여 도구적 자원수혜여부와 수혜시간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과 다중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4-14>에 제시하였다. 도구적 자원 수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독립변수 중 자녀에게 주는 도구적 자원 제공 여부와 통제변수는 부모의 가구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도구적 자원을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우 자녀로부터 도구적 자원을 수혜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사 및 육아도움을 제공한 경우 자녀의 부모에 대한 도구적 자원 이전의 경향이 높아진다고 한 고선강(2008)의 결과와 유사하다. 부모의 가구

소득은 많을수록 도구적 자원을 수혜 받을 가능성이 컸는데 이는 부모의 소득이 많을 경우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의 기대감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노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와의 도구적 자원이전이 증가한다고 한 홍달아기(199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14>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도구적 자원수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도구적 자원수혜 여부		도구적 자원수혜 시간	
		B	odds Ratio	B	β
독립변수	경제적 자원제공여부	0.264	1.302	0.025	0.030
	도구적 자원제공여부	1.849 ***	6.352	0.178	0.202 ***
	정서적 지지	0.044	1.045	0.007	0.012
통제변수	연령	0.037	1.037	0.001	0.013
	교육수준	-0.062	0.940	-0.000	-0.000
	건강상태	-0.240	0.787	-0.017	-0.029
	가구소득(자연로그)	0.460 *	1.584	0.036	0.070 *
	소득활동여부	0.810	2.249	0.067	0.066 *
	자녀수	-0.011	0.989	0.016	0.029
	자녀연령	0.032	1.032	0.007	0.077
	자녀성별	0.112	1.118	0.027	0.034
	자녀교육수준	-0.037	0.964	-0.006	-0.058
	자녀취업여부	-0.285	0.752	-0.046	-0.053
	자녀의 미취학자녀	0.052	1.054	-0.008	-0.010
	자녀의 취학이상 자녀	0.976	2.655	0.138	0.089 *
	자녀가구소득(자연로그)	-0.340	0.711	-0.044	-0.075 *
상수	-6.155 *		-0.188		
-2Log Likelihood		486.817			
Chi-square / F		77.096***		5.17***	
R ²				0.080	

* p<.05, *** p<.001

부모의 도구적 자원 수혜여부를 분석한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수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활동여부와 자녀 현황, 자녀가구의 소득이었다. 부모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자녀로부터의 도구적 자원 수혜시간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부모가 소득활동으로 인하여 부모가구의 가사일을 돌볼 수 없는 경우 자녀가 부모의 가사일을 돕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자녀가구의 자녀현황은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취학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도구적 자원수혜시간이 증가하였다. 자녀가구의 자녀가 취학이상인 경우 자녀의 연령이 높을 가능성이 많고, 그런 경우 부모의 연령이 많기 때문에 부모의 가사일을 자녀가 도와주기 때문에 도구적 자원수혜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녀가구소득의 경우 도구적 자원수혜시간에 자녀가구의 소득은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구의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로부터의 도구적 자원수혜시간은 증가하였다. 이는 소득이 낮은 자녀의 경우 취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한 자녀는 취업한 자녀보다 부모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할 시간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의 도구적 자원 수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에게 주는 도구적 자원 제공여부와 자녀가구의 자녀현황, 자녀가구소득, 부모의 가구소득, 부모의 소득활동 여부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도구적 자원 수혜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한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도구적 자원을 수혜 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도구적 자원수혜시간은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 자녀의 가구에 취학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자녀가구의 소득이 낮을수록 도구적 자원 수혜시간은 증가하였다.

부모와 기혼자녀의 도구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자원의 제공과 수혜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제공과 수혜에 모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독립변수 중 도구적 자원 제공여부와 수혜여부였다. 도구적 자원의 제공여부와 수혜여부는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수혜 받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았고, 자녀로부터 도구적 자원을 수혜 받는 경우도 부모가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 수혜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도구적 자원이전은 제공과 수혜에 미치는 변수는 모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는데 미치는 변수는 자녀성별, 자녀취업여부, 자녀현황, 자녀가구소득으로 즉, 자녀가 딸인 경우, 자녀가 취업한 경우, 자녀가구에 미취학자녀 또는 취학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구의 소득이 많을수록 도구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수혜의 경우 독립변수를 제외한 통제변수 중 가구소득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부모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로부터 도구적 자원을 수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 중 부모가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는 자녀관련 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부모가 자녀의 상황에 따라 자녀가 필요할 경우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수혜의 경우 부모소득이 많은 경우 자녀로부터 도구적 자원을 수혜 받는 것으로 보아 자녀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의 제공에 대한 기대하여 부모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 부모와 자녀의 도구적 자원이전의 동기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3)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표 4-15>에 제시하였다.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독립변수 중에는 경제적 자원 수혜 여부이며, 통제변수로는 건강상태, 자녀수, 자녀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을 경우 정서적 지지는 높아졌다. 이는 부모에게 자녀가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 부모 부양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며, 이러한 부양을 받는 부모는 그 자녀에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4-15> 기혼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B	β
독립 변수	경제적 자원제공여부	0.048	0.034
	경제적 자원수혜여부	0.207	0.151 ***
	도구적 자원제공여부	-0.024	-0.016
	도구적 자원수혜여부	0.020	0.007
통제 변수	연령	-0.003	-0.020
	교육수준	-0.011	-0.049
	건강상태	0.114	0.114 ***
	가구소득(자연로그)	-0.002	-0.002
	소득활동여부	-0.024	-0.014
	자녀수	-0.072	-0.077 *
	자녀연령	-0.001	-0.008
	자녀성별	-0.159	-0.117 **
	자녀교육수준	0.003	0.017
	자녀취업여부	-0.034	-0.022
	자녀의 미취학자녀	0.045	0.034
	자녀의 취학이상 자녀	-0.046	-0.017
	자녀가구소득(자연로그)	0.032	0.032
상수		3.948	
F값		3.76***	
R ²		0.063	

* p<.05, ** p<.01, *** p<.001

자녀가 딸인 경우에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지지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아들인 경우보다 딸인 경우에 부모와 자녀 간 친밀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상태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정서적 지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수단적 일상 수행능력이 낮을수록 정서적 지지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정기원(2001)의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하였다.

자녀수는 부적 영향을 미쳐 자녀수가 적을수록 정서적 지지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따로 살고 있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정서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정기원(2001)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는데, 정기원의 연구에 분석된 자료는 1998년도 전국 노인 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와 1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또한 정기원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자녀에 대한 인식과 10년 전과 요즘의 사회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의 차이로 생각되며, 자녀가 적을 경우 부모는 특정 자녀와 더 많은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 자원 수혜 여부, 자녀성별, 건강상태, 자녀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는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딸인 경우에 친밀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부모와 기혼자녀 간의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리

부모와 기혼자녀 간의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기 위하여 자원이전을 경제적 자원, 도구적 자원, 정서적 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제공과 수혜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비교한 결과는 <표 4-16>과 같다. 경제적 자원이전과 도구적 자원이전, 정서적 지지의 각각의 모형에 대한

< 표 4-16 > 부모와 기혼자녀 간의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리

변수		경제적 자원이전		도구적 자원이전		정서적 지지
		제공	수혜	제공	수혜	
독립변수	경제적 자원제공 여부		+			
	경제적 자원수혜 여부	+				+
	도구적 자원제공 여부				+	
	도구적 자원수혜 여부			+		
	정서적 지지		+			
통제변수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
	가구소득(자연로그)	+	-		+	
	소득활동여부					
	자녀수					-
	자녀연령	-				
	자녀성별	+		-		-
	자녀교육수준					
	자녀취업여부			+		
	자녀의 미취학자녀		+	+		
	자녀의 취학이상 자녀			+		
자녀가구소득(자연로그)		+	+			

+ : 정적영향

- : 부적영향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각 모형에서 가장 빈번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소득과 자녀성별이었다. 가구소득은 경제적 자원제공, 경제적 자원수혜, 도구적 자원수혜의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녀성별은 경제적 자원제공, 도구적 자원제공, 정서적 지지의 모형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자녀가구의 미취학 자녀와 자녀가 구소득은 모두 경제적 자원수혜와 도구적 자원제공의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소득활동여부, 자녀의 교육수준은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5. 부모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부모와 자녀 간의 자원이전과 부모의 노 후준비의 영향력

1) 부모와 자녀 간의 자원이전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자원이전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모델에 포함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Tolerance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에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4-17>은 자원이전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1단계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로 자원이전 관련 변수를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4.5%였으며, 자녀에게 주는 경제적 자원제공액, 정서적 지지, 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자원수혜액, 자녀로부터 받는 도구적 자원수혜 시간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투입된 변수들 중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경제적 자원제공액의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때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한 이형실(2003)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정서적 지지는 생활 만족도와 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한 김효정·김명자(1995), 안경숙(2005), 임효연(2009), 최현식·하정철(201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자원수혜액은 부적인 영향을 미쳐 수혜액이 적을수록 생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수혜받기 보다는 제공할 때 부모의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녀로부터 받는 도구적 자원수혜 시간을 보면 도구적 자원수혜 시간이 많을수록 생활 만족도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로부터 도구적 자원수혜 시간이 많을수록 자녀와의 만남이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생각되며,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한 신화용·조병은(2001)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2단계에서는 자원이전관련 변수에 노후준비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18.4% 증가하여 전체 설명력이 22.9%로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노후준비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1단계분석에 노후준비를 투입하였을 때 자녀에게 주는 경제적 자원제공액과 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자원수혜액, 정서적 지지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녀로부터 받는 도구적 자원수혜시간의 유의미한 영향은 사라졌다.

2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자녀에게 주는 경제적 자원제공액, 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자원수혜액, 정서적 지지, 노후준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노후준비($\beta=0.439$)였다. 즉 자녀에게 주는 경제적 자원제공액이 많을수록, 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자원수혜액은 적을수록,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형실(2003)의 연구에서 부모의 생활 만족도가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때와 정서적 자원을 수혜 받을 때 높아진다는 결과를 지지하였다. 노후준비는 생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노후준비도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들(김원배, 2009; 안현선

외, 2009; 김성령, 2010; 박선희, 2010; 정순돌·이선희, 2011; 김미령, 2012)을 지지하였다.

3단계 분석에서는 부모 특성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2단계에 비해 설명력이 3.9% 증가하여 전체 설명력이 26.8%로 증가하였다. 2단계 분석에 부모 특성 변수들을 추가한 결과 2단계에서 유의하였던 변수 중 정서적 지지와 노후준비는 여전히 유의한 변수인 반면 자녀에게 주는 경제적 자원제공액과 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자원수혜액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사라졌다.

3단계 분석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서적 지지, 노후준비, 건강상태, 가구소득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노후준비($\beta=0.391$)가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상태, 가구소득, 정서적 지지 순이었다.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아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성인자녀의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김효정·김명자(199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노후준비를 잘 할수록 생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김성령(2010), 김원배(200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건강상태는 좋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들(박성연·최혜경, 1985; 정영주, 1999; 권중돈·조주연, 2000; 허준수, 2004; 김원배, 2009; 정순돌·이선희, 2011; 임소진·여성연, 2011; 장명숙·박경숙, 201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가구소득은 생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들(이선희·이연숙, 1997; 임창희, 2004; 김은아, 2007; 김원배, 2009; 김성령, 2010; 박미석·김미영, 2012; 최현식·하정철, 2012)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1단계와 2단계 회귀분석의 결과 자원이전의 경우 부모는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수혜받기 보다는 제공하였을 때 생활 만족도가 높았으며, 자녀와의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잘 할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3단계의 회귀분석결과 부모의 생활 만족도에

<표 4-17> 생활 만족도에 대한 자원이전의 영향력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독립 변수	경제적 자원제공액	0.026	0.162 ***	0.011	0.067 *	0.007	0.041
	경제적 자원수혜액	-0.016	-0.075 *	-0.015	-0.071 **	-0.010	-0.050
	도구적 자원제공시간	-0.004	-0.006	-0.008	-0.013	-0.004	-0.007
	도구적 자원수혜시간	0.105	0.061 *	0.065	0.038	0.085	0.050
	정서적 지지	0.109	0.111 ***	0.098	0.100 ***	0.077	0.078 ***
노후준비	노후준비			0.278	0.439 ***	0.245	0.391 ***
부모 변수	연령					-0.005	-0.032
	교육수준					0.008	0.038
	건강상태					0.132	0.137 ***
	가구소득(자연로그)					0.096	0.109 ***
	소득활동여부					0.060	0.036
	자녀수					-0.006	-0.006
상수		2.808		2.203		1.495	
F값		10.61***		54.43***		31.52***	
R ²		0.045		0.229		0.268	

* p<.05, ** p<.01, *** p<.001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후준비였으며, 3단계에서 추가로 투입된 부모변수 중 건강상태와 가구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자원이전관련 변수는 정서적 지지만이 유의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기혼 자녀와 자원이전보다는 부모의 특성 중 건강상태와 가구소득이 생활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의미로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경제적 상황과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구소득과 건강의 영향이 기혼자녀와의 자원이전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자녀와의 자원이전은 정서적 지지만이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준비는 자원이전에 비해 생활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원이전에서 경제적 자원이전과 도구적 자원이전이 다른 변수들이 투입되면 자원이전의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보아 노후준비를 매개로하여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 분석에서 경로모형으로 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2) 생활 만족도에 대한 자원이전과 노후준비의 효과

자원이전과 노후준비를 매개로 한 생활 만족도에 대한 변수들의 체계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변수들의 상관관계(부록 1)를 확인하였고, Tolerance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자원이전의 5가지 형태(경제적 자원제공과 수혜, 도구적 자원제공과 수혜, 정서적 지지)를 각각 투입하고 노후준비를 매개변인으로 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자원수혜, 도구적 자원제공, 도구적 자원수혜를 투입한 3개의 경로모형에서는 경로분석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 이들에 대한 분석은 부록으로 처리하였다. 본 장

에서는 생활 만족도를 최종변수로 하고 경제적 자원제공과 노후준비를 매개변인으로 한 경로모형과 정서적 지지와 노후준비를 매개변인으로 한 경로모형의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1) 생활 만족도에 대한 경제적 자원제공과 노후준비의 효과

경로모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적 자원제공액, 노후준비, 생활 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18>과 같다. 분석결과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제공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소득이었고, 경제적 자원수혜여부, 교육수준, 자녀수의 순서로 영향을 미쳤다. 즉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는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제공액은 많았다. 이 모형의 설명력은 7.4%였다.

부모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소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연령, 경제적 자원제공액, 교육수준, 건강상태, 소득활동여부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제공액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후준비도가 높았으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노후준비도는 낮았다. 이 모형의 설명력은 18.3%였다.

부모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노후준비가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상태, 가구소득, 정서적 지지, 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자원수혜 여부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노후준비를 잘 할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지 않는 경우에 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이 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설명력은 26.7%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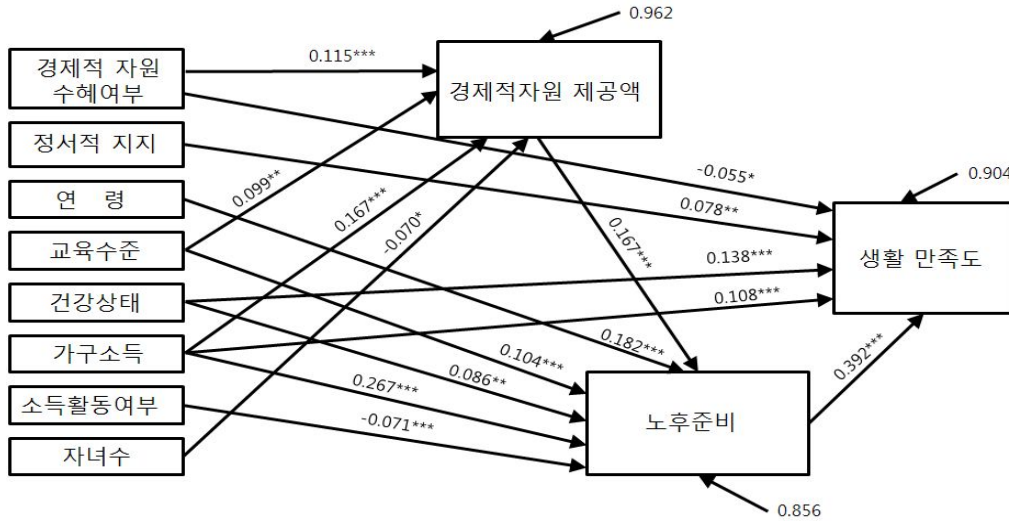
<표 4-18> 부모의 경제적 자원제공과 노후준비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효과

변수		경제적 자원제공액		노후준비		생활 만족도	
		B	β	B	β	B	β
독립 변수	경제적 자원수혜 여부	0.947	0.115 ***	-0.092	-0.043	-0.074	-0.055 *
	도구적 자원수혜 여부	0.082	0.005	0.160	0.038	0.106	0.040
	정서적 지지	0.288	0.048	0.016	0.010	0.077	0.078 **
부모 변수	연령	-0.054	-0.055	0.046	0.182 ***	-0.005	-0.031
	교육수준	0.135	0.099 **	0.037	0.104 ***	0.009	0.038
	건강상태	0.121	0.020	0.132	0.086 **	0.132	0.138 ***
	가구소득(자연로그)	0.881	0.167 ***	0.377	0.267 ***	0.095	0.108 ***
	소득활동여부	-0.030	-0.003	-0.190	-0.071 *	0.061	0.036
	자녀수	-0.391	-0.070 *	0.038	0.026	-0.004	-0.004
경제적 자원제공액				0.043	0.167 ***	0.007	0.043
노후준비						0.246	0.392 ***
상수		0.091		-3.366		1.480	
F값		9.42***		23.34***		34.33***	
R ²		0.074		0.183		0.267	

* p<.05, ** p<.01, *** p<.001

<표 4-18>의 회귀분석결과를 토대로 경로모형을 확인한 결과를 <그림 4-1>에 제시하였다. <그림 4-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만을 경로에 제시하였다.

<그림 4-1> 부모의 경제적 자원제공, 노후준비, 생활 만족도의 경로모형



* $p < .05$, ** $p < .01$, *** $p < .001$

중속변수에 대한 총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표 4-19>는 <표 4-18>의 결과를 종합하여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각 변수들의 인과적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생활 만족도에 대한 변수들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자원수혜 여부와 정서적 지지, 건강상태, 가구소득, 노후준비에서 직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자원수혜여부는 직접효과가 -0.055이고 간접효과가 -0.004로 나타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총 효과는 -0.059이었다. 정서적 지지는 직접효과 0.078과 간접효과 0.009로 총 효과는 0.087이다.

<표 4-19> 생활 만족도에 대한 경제적 자원제공과 노후준비의 효과 분석

종속 변수	독립변수	인과적 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경제적 자원 제공액	경제적 자원수혜 여부	0.115 ***		0.115
	도구적 자원수혜 여부	0.005		0.005
	정서적 지지	0.048		0.048
	연령	-0.055		-0.055
	교육수준	0.099 **		0.099
	건강상태	0.020		0.020
	가구소득(자연로그)	0.167 ***		0.167
	소득활동여부	-0.003		-0.003
노후 준비	자녀수	-0.070 *		-0.070
	경제적 자원수혜여부	-0.043	0.019	-0.024
	도구적 자원수혜여부	0.038	0.001	0.039
	정서적 지지	0.010	0.008	0.018
	연령	0.182 ***	-0.009	0.173
	교육수준	0.104 ***	0.017	0.121
	건강상태	0.086 **	0.003	0.089
	가구소득(자연로그)	0.267 ***	0.028	0.295
	소득활동여부	-0.071 *	-0.001	-0.072
생활 만족도	자녀수	0.026	-0.012	0.014
	경제적 자원제공액	0.167 ***		0.167
	경제적 자원수혜여부	-0.055 *	-0.004	-0.059
	도구적 자원수혜여부	0.040	0.015	0.055
	정서적 지지	0.078 **	0.009	0.087
	연령	-0.031	0.065	0.034
	교육수준	0.038	0.051	0.089
	건강상태	0.138 ***	0.036	0.174
	가구소득(자연로그)	0.108 ***	0.123	0.231
	소득활동여부	0.036	-0.028	0.008
	노후준비	0.392 ***		0.392

* p<.05, ** p<.01, *** p<.001

건강상태는 직접효과가 0.138이고, 간접효과가 0.036이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더한 총 효과는 0.174이다. 가구소득은 직접효과 0.108, 간접효과 0.123으로 총 효과는 0.231이었다. 노후준비의 총 효과는 0.392로 가장 큰 효과를 보였고 그 다음은 가구소득, 건강상태, 정서적 지지, 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자원수혜 여부 순으로 총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생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생활 만족도에 대한 변수들의 직접효과만을 보여주었으나, 경로분석을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직접효과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는 가구소득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건강상태의 영향력 보다 작았으나,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를 고려한 총효과를 비교했을 때는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노후준비 다음으로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매개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노후준비는 독립변수 중 연령, 교육수준, 소득활동여부, 경제적 자원제공액과 생활 만족도간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즉 연령, 교육수준, 소득활동여부, 경제적 자원제공액은 생활 만족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지만 노후준비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노후준비는 가구소득, 건강상태와 생활 만족도간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

이 경로모형을 통해서 자원이전, 노후준비, 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자원이전관련 변수인 경제적 자원수혜여부는 직접적으로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적 자원제공액과 노후준비를 매개하여 간접효과도 미쳤다. 또한 경제적 자원제공액은 직접효과는 미치지 않았고 노후준비를 통한 간접효과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자원수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제공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원제공액이 증가할수록 노후준비도는 높아졌다. 또한 노후준비는 생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생활 만족도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노후준비의 효과

경로모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적 지지, 노후준비, 생활 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4-20>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자원수혜여부가 가장 영향력이 컸으며, 건강상태, 자녀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는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녀수는 작을수록 정서적 지지는 높았다. 이 모형의 설명력은 5.2%였다.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소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연령, 자녀에게 주는 경제적 자원제공 여부, 교육수준, 건강상태, 소득활동여부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노후준비도는 높았다. 이 모형의 설명력은 17.4%였다.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본 결과 가장 큰 영향력은 노후준비이고, 그 다음으로 건강상태, 가구소득, 정서적 지지, 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자원수혜여부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변수들의 생활 만족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26.8%였다. 결과적으로 노후준비를 잘 할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수혜를 받지 않는 경우 생활 만족도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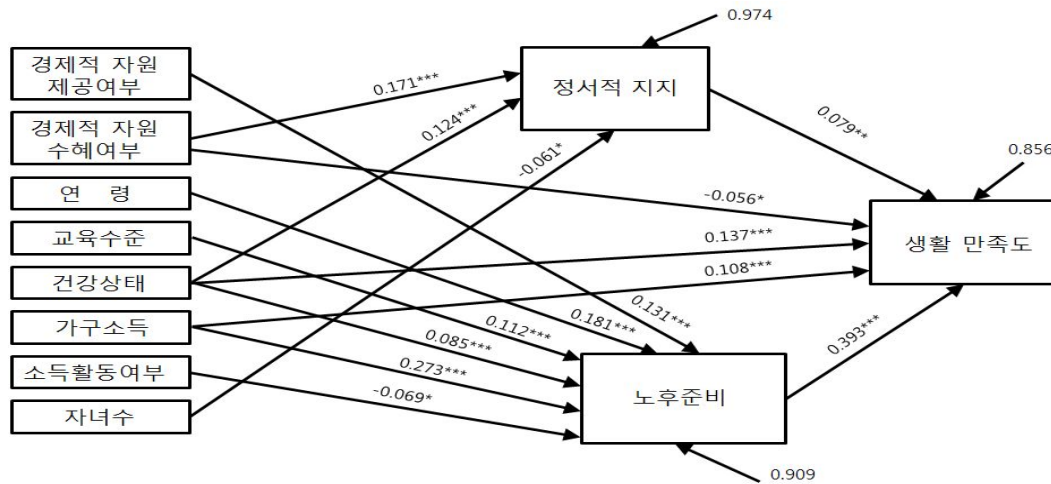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표 4-20>의 회귀분석결과를 토대로 경로모형을 확인한 결과를 <그림 4-2>에 제시하였고, 정서적 지지와 노후준비를 매개로 한 부모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인과모형에서 각 변수들의 인과적 효과를 <표 4-21>에 제시하였다. 생활 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자원수혜여부와 건강상태, 가구소득, 정서적 지지,

<표 4-20>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지지와 노후준비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효과

변수		정서적 지지		노후준비		생활 만족도	
		B	β	B	β	B	β
독립 변수	경제적 자원제공여부	0.040	0.029	0.287	0.131 ***	0.066	0.048
	경제적 자원수혜여부	0.235	0.171 ***	-0.088	-0.041	-0.075	-0.056 *
	경제적 자원수혜여부	0.017	0.011	0.029	0.012	-0.007	-0.005
	도구적 자원수혜여부	-0.011	-0.004	0.138	0.033	0.106	0.040
부모 변수	연령	-0.004	-0.027	0.046	0.181 ***	-0.005	-0.030
	교육수준	-0.008	-0.036	0.040	0.112 ***	0.009	0.039
	건강상태	0.122	0.124 ***	0.130	0.085 **	0.131	0.137 ***
	가구소득(자연로그)	0.006	0.007	0.385	0.273 ***	0.095	0.108 ***
	소득활동여부	-0.051	-0.029	-0.187	-0.069 *	0.061	0.036
	자녀수	-0.057	-0.061 *	0.033	0.023	-0.004	-0.004
정서적 지지				0.022	0.014	0.077	0.079 **
노후준비						0.246	0.393 ***
상수		3.980		-3.420		1.470	
F값		5.80***		19.86***		31.52***	
R ²		0.052		0.174		0.268	

* p<.05, ** p<.01, *** p<.001

<그림 4-2>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지지와 노후준비의 생활 만족도의 경로 모형



* p<.05, ** p<.01, *** p<.001

노후준비였다. 경제적 자원수혜여부의 직접효과는 -0.056이고, 간접효과는 -0.001로 총 효과는 -0.057이었다. 건강상태의 직접효과는 0.137이고, 간접효과는 0.044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총 효과는 0.181이다. 가구소득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는 각각 0.108로 총 효과는 0.216이며, 정서적 지지는 직접효과가 0.079, 간접효과가 0.006으로 총 효과는 0.085이다. 노후준비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총 효과는 0.393으로 노후준비의 총 효과가 가장 컸다. 그 뒤로 가구소득, 건강상태, 정서적 지지, 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자원수혜여부 순으로 총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생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생활 만족도에 대한 변수들의 직접효과만을 보여주었으나, 경로분석을 통한 총효과를 확인하여 변수들의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직접효과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는 가구소득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건강상태의 영향력 보다 작았으나,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를 고려한 총효과를 비교했을 때는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노후준비 다음으로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21> 생활 만족도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노후준비의 효과 분석

종속 변수	독립변수	인과적 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정서적 지지	경제적 자원제공 여부	0.029		0.029
	경제적 자원수혜 여부	0.171 ***		0.171
	도구적 자원제공 여부	0.011		0.011
	도구적 자원수혜 여부	-0.004		-0.004
	연령	-0.027		-0.027
	교육수준	-0.036		-0.036
	건강상태	0.124 ***		0.124
	가구소득(자연로그)	0.007		0.007
	소득활동여부	-0.029		-0.029
	자녀수	-0.061 *		-0.061
노후 준비	경제적 자원제공 여부	0.131 ***	0.000	0.131
	경제적 자원수혜 여부	-0.041	0.002	-0.039
	도구적 자원제공 여부	0.012	0.000	0.012
	도구적 자원수혜 여부	0.033	0.000	0.033
	연령	0.181 ***	0.000	0.181
	교육수준	0.112 ***	-0.001	0.111
	건강상태	0.085 **	0.002	0.087
	가구소득(자연로그)	0.273 ***	0.000	0.273
	소득활동여부	-0.069 *	0.000	-0.069
	자녀수	0.023	-0.001	0.022
	정서적 지지	0.014		0.014
생활 만족도	경제적 자원제공 여부	0.048	0.053	0.101
	경제적 자원수혜 여부	-0.056 *	-0.001	-0.057
	도구적 자원제공 여부	-0.005	0.006	0.001
	도구적 자원수혜 여부	0.040	0.013	0.053
	연령	-0.030	0.069	0.039
	교육수준	0.039	0.041	0.080
	건강상태	0.137 ***	0.044	0.181
	가구소득(자연로그)	0.108 ***	0.108	0.216
	소득활동여부	0.036	-0.029	0.007
	자녀수	-0.004	0.004	0.000
	정서적 지지	0.079 **	0.006	0.085
노후준비	0.393 ***		0.393	

* p<.05, ** p<.01, *** p<.001

매개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는 자녀수와 생활 만족도간 완전매개효과를 보였고, 경제적 자원수혜여부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여 자녀수가 생활 만족도에는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정서적 지지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노후준비는 경제적 자원제공여부, 연령, 교육수준, 소득활동여부는 생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지만 노후준비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생활 만족도 간 노후준비는 완전매개효과를 보였고 가구소득과 생활 만족도간에 노후준비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이 경로모형을 통해서 자원이전, 노후준비, 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자원이전관련변수인 경제적 자원제공여부는 노후준비를 통해 생활 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적 자원수혜여부는 직접적 영향과 더불어 정서적 지지를 통해 생활 만족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정서적 지지는 생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 노후준비를 잘하였으며, 노후준비도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 수혜 받는 경우 정서적 지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지지는 생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는 높아졌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혼자녀를 둔 중년기 부모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로 자원이전과 노후준비가 생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중년기 가구의 노후대비에 도움을 주어 이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2009년 한국연구재단의 중년기가정의 세대 간 자원이전에 관한 자료를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최종 표본으로 기혼자녀를 둔 부모가구로 1208가구를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SAS/PC Statistic Program(Version 9.3)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 부모는 기혼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을 하고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지 않을 때 생활에 더 만족하였으며, 기혼자녀와 자원을 주고 받는 일이 부모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부모의 생활만족에는 노후준비, 건강상태, 가구소득이 더 중요한 결과로 나타났다. 자원이전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 중년기 부모는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 생활 만족도에 높아지는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는 경우 생활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부적영향을 미쳤다. 또한 단계가 진행될수록 정서적 지지를 제외한 경제적 자원이전과 도구적 자원이전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노후준비와 건강상태 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자녀에 자원이전 보다는 부모의 특성 중 건강상태와 가구소득이 생활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의미로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소득과 건강이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소득이 충분하고 건강한 경우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부모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중년기 부모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중년기 부모의 소득보장을 위해 은퇴 후에도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노후에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며 더불어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액은 직접적으로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노후준비를 통해 간접적으로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보였다.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결과, 경제적 자원제공액과 노후준비를 매개변수로 하여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접효과를 나타낸 변수 중 가장 큰 효과를 보인 변수는 노후준비였고 그 다음은 가구소득, 건강상태, 정서적 지지, 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자원수혜여부 순으로 총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경제적 자원제공액은 생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노후준비를 통한 간접효과를 미쳐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 중년부모의 생활 만족도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즉 직접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것이 중년부모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보였는데,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지원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가능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자녀에게 지원을 하지 못하는 부모들은 스스로 자녀에 대한 도리를 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생활 만족도가 낮아질 수도 있다.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제공을 통해 부모의 생활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볼 때 이타주의 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중년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만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자녀세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와 기혼자녀가 정서적으로 친밀할수록 부모는 생활에 더 만족하였다. 정서적 지지와 노후준비를 매개로 한 생활 만족도의 경로분석의 결과 노후준비의 총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가구소득, 정서적 지지, 건강상태, 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자원수혜여부 순으로 총 효과의 크기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노후준비, 가구소득, 건강상태와 더불어 정서적 지지 또한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년기의 부모들은 생애주기 상 자녀를 떠나보내는 시기이므로 자녀의 빈자리로 인해 중년기 부모들이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또 선행연구(김효정·김명자, 1995; 안경숙, 2005; 최현석·하정철, 2012)의 결과 중년기 이상의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와의 정서적 지지는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자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핵가족화되고 자녀의 부양의식은 약화되기 때문에 중년기 이후 노인들은 노인 단독 세대로 살아가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고령화되면서 배우자 사별과 같은 상실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자녀와의 왕래가 적은 노인이라면 고독감과 외로움은 더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을 사회적 지지나 노인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일자리사업과 같은 여러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중년기 부부의 노후준비는 생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뿐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노후준비를 통해서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생활만족에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중년기 부부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면, 이들의 생활에 대한 만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중년기 부모의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연령이 적을수록,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고, 제공액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노후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중 특히 가구소득이 가장 큰 영향을 미

쳤는데 가구소득이 많은 경우 현재의 생활도 여유가 있을 것이고, 노후준비를 잘 하여 노후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현재의 생활도 어렵지만 노후준비가 미흡하여 노후의 생활의 질도 떨어질 것이다. 또한 현재의 소득이 적은 경우 노후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생활유지를 위한 소득활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을 수 있고, 소득이 적은 경우,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이 여의치 않아 자녀세대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어 자녀로부터의 부양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빈익빈부익부 현상으로 중년기에 소득이 적고 빈곤한 계층일수록 노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빈곤층이 더 빈곤해지지 않도록 계층별 다양한 지원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경우 부모는 자녀가 어릴수록, 아들인 경우에 더 많은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였다. 기혼자녀를 둔 부모의 특성 중 연령에 따른 차이는 경제적 자원이전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 부모가 기혼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50-54세는 62.75%, 55-59세는 66.93%, 60세 이상은 54.49%로 60대에 비해 50대의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중회귀 분석의 결과 부모의 연령은 경제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자녀의 연령과 성별은 부모가 기혼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쳐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아들인 경우 부모는 기혼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고, 경제적 자원이전액 또한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자원이전에 대한 기간을 최근 5년으로 측정된 것을 감안하면 자녀의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부모가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의 결혼자금을 중년기의 부모가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부모가구에게 큰 부담이며, 자녀의 결혼비용으로 인해 노후준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아들인 경

우 신혼집을 마련해 줘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과도한 결혼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모두 부모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그러므로 혼례문화의 간소화와 높은 주택가격의 안정화 방안이 마련되어 자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부모는 기혼자녀가 아들인 경우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고 딸인 경우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였다. 기혼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에게 자원을 제공할 때 제공되는 자원의 종류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기혼자녀가 아들인 경우 딸에 비해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었고 제공액 또한 많았다. 또 기혼자녀가 딸인 경우는 도구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고, 제공시간 또한 많았다. 부모의 기혼자녀에 대한 도구적 자원제공 여부와 제공시간의 분석에서 성별과 더불어 자녀가구의 자녀현황과 자녀의 취업여부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여 보면 딸인 자녀가 취업한 경우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딸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이들의 자녀를 맡길 만한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여전히 육아는 기혼여성의 몫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높아 딸의 직장생활을 위해 부모가 손자녀 돌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입장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심리적 기쁨을 얻을 수도 있지만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육체적으로 힘들게 되면 중년기 부모의 생활 만족도는 낮아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시설의 확충과 같이 육아를 사회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부모와 기혼자녀의 자원이전은 교환이론으로 설명되는 부분도 있었고, 이타주의론으로 설명되는 부분도 있었다. 기혼자녀와의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부모가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을 때 부모의 경제적 자원제공의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제공액 또한 높았다.

또 자녀로부터 도구적 자원을 수혜 받을 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도구적 자원제공시간도 많아졌다.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경우,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였고 제공액도 많았다. 또한 자녀로부터의 도구적 자원수혜의 경우도 부모가 자녀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할 때 자녀는 부모에게 도구적 자원을 제공하였고 자원제공시간도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자녀를 둔 부모와 기혼자녀의 자원이전은 교환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부모의 소득이 적을수록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이타주의 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에 근거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중년기 부모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분석으로 자녀와의 자원이전과 노후준비를 매개로 하였다. 현대의 중년기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많은 부담을 안고 있고, 이들에게 당면한 과제가 앞으로 다가올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므로 이 두 가지를 고려하여 연구에 적용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중년기 부모의 요구부분과 노후준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들의 생활만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할 때 분석에 이들의 요구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였다면 앞으로의 이들의 생활만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노후준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였다면 중년기 부모들이 노후준비를 할 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중년기의 생활 만족도와 노후준비에 대한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 중년기의 요구부분과 노후준비에 대해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자녀와의 자원이전을 경제적 자원이전, 도구적 자원이전, 정서적 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자원이전을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자녀로부터 수혜 받는 경우 모두를 고려하여 부모와 자녀의 특성이 자원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자원이전에 대한 연구들과 비교하여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부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원이전을 분석할 때 이들이 어떤 목적으로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고 수혜 받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중년기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자원이전의 연구에서 어떠한 이유로 자원이전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자료는 원래의 취지가 3세대 간의 자원이전을 보기 위해 수집된 자료이다. 3세대간의 자원이전을 보기 위해서는 3세대가 모두 생존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표집의 과정에서 대상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 처음 조사되었던 조사대상자들의 도움을 받아 연구대상이 수집되는 눈덩이표집방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그렇다보니 조사대상자들의 빈곤층 비율이 낮게 수집이 되어 전반적인 조사대상자들이 경제상태가 좋고 교육수준이 높게 나타나 전국대상에 비하여 표집대상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노년층의 빈곤율이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은 것을 감안하면 빈곤한 중년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이들이 더 빈곤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연령, 소득, 교육수준 등 다양한 계층화에 대한 세부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유진·한경혜(1997). 비동거 자녀의 노부모 부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17(1), 271-288
- 강유진(2005). 한국 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30·40·50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16(4), 159-174
- 강이주(2008). 노인의 삶의 질 관련요인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26(5), 1-142
- 강희경·조복희(1999).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20(2), 41-55
- 고선강(2002). 노부모의 금전이전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6(2), 53-64
- 고선강(2005). 미국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이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23(1), 187-195
- 고선강(2008). 치매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12(2), 209-229
- 고선강(2011). 중노년기 가정의 세대 간 자원이전: 경제자원의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15(1), 157-175
- 고선강(2012). 중년기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이전의 호혜성. 한국자원경영학회지16(2), 103-121
- 고선강(2012). 부모의 결혼자금 지원과 경제적 자원이전:20-40대 기혼여성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16(3), 1-19
- 권중돈·조주연(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20(3), 61-76
- 김기택·손병돈(1995). 1982~92년간 근로자의 소득분배변화 추세:소득원천별,

- 사회보장수혜, 사적이전, 조세부담. 사회복지연구 6, 91-115
- 김명자·손서희(2005). 기혼자녀(아들·딸)와 부모간의 정서적 결속도에 따른 부양행동. 대한가정학회지43(7), 37-51
- 김미령(2012). 연령과 성별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 차이분석. 한국노년학32(1), 145-161
- 김성령(2010).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주의 가치관, 노후준비도,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미·박미려(2008). 중·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자원 교류유형 및 교류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26(5), 1-14
- 김승권(2010). 한국인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 보건·복지 Issue&Focus 68
- 김원배(2009). 한국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활동이론과 자원이론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의숙·이기영(2010). 가족자원관리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김윤정·최유호(2007). 성인자녀의 부모부양동기에 관한 연구: 성별 및 부양자-조부모 관계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12(3), 313-334
- 김은경(2002). 농촌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자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20(4), 27-36
- 김정석·김익기(2000). 세대간 지원교환의 형태와 노인들의 생활 만족도. 한국노년학20(2), 155-168
- 김지경·송은경(2004).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여부 및 교류액의 결정요인 : 따로사는 부모가구와 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22(5), 75-89
- 김지경·송현주(2008).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 간의 사적소득이전. 사회보장연구24(3), 77-98

- 김지연(2005). 성인자녀와 부모 간 경제적 자원교류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2008). 한국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 지원행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2005). 어머니와 자녀간 지원교환과 관계만족도: 노후동거의사를 조건으로. 한국심리학회지:여성10(4), 525-553
- 김혜진(2012). 중년층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이 노후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노인복지제도 인지여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32, 53-80
- 김효정·김명자(1995).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 및 노부모-성인자녀 간 결속도에 따른 노인의 생활 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13(3), 36-46
- 김태현(2004). 가족이념, 생활교류가 부모자녀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중년세대와 성인세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9(1), 85-109
- 문숙재·김순미(1997).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35(5), 1-15
- 박미석·김미영(2012).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정자원 수준 및 집단별 생활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16(3), 35-51
- 박선희(2010). 은퇴 준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베이비 붐 세대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최혜경(1985). 노인의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 가족부양체계를 중심으로 한 인과모형의 검증 -. 대한가정학회지23(1), 71-85
- 박준성·정태연(2011). 중·노년기 사람들의 생활스트레스와 행복의 관계: 낙관성, 자기조절, 효능감의 매개효과. 스트레스연구19(1), 31-38
- 박창제(2008).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0(3), 275-297

- 배문조(2011). 중년기의 성공적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노후생활준비의식이 노후생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16(1), 45-61
- 배문조·전귀연(2004).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42(7), 89-102
- 배희선(1998). 중·노년기 가계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경진(2011). 중년기 가계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공교육비 지출 유무를 중심으로-.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병돈(1998). 가족간 소득이전의 경제적 계층별 분배. 사회보장연구14(1), 157-187
- 손용진(2008). 노부모-자녀 간의 사적 경제교류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2, 225-246
- 신화용·조병은(2001).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자원과 생활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39(1), 39-51
- 안경숙(2005). 노인부부·노인독신가구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25(1), 1-19
- 안기선(2011). 중고령 취업자의 노후생활계획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에 대한 연구-한국노동패널 4차년도와 11차년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현선 외(2009). 중년기 여성의 노후준비도와 성공적 노후에 대한 인식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13(3), 137-155
- 양은영(2010). 중년기 성인의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인순·최수일(2012). 베이비부머의 성격특성이 노후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천안지역 공단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2(4),

245-262

- 윤선영(2008). 노인가구의 연령집단별 사적소득이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형·김영훈(2011). 노후준비를 위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가족이 미치는 영향-수도권 고령자의 주택연금제도 이용의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15(4), 169-188
- 이선형·이연숙(1997). 노인단독가구의 가계재정관리와 경제생활 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1(2), 31-43
- 이선형·최은희(2010). 안정적 노후준비 가계의 특성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예비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14(4), 193-212
- 이신영(2009). 도시거주 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사회과학논총28(1), 205-224
- 이윤정(2010). 어머니와 성인 자녀 간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정·고선강(2011). 어머니와 성인자녀 간 자원이전: 경제적 지원과 돌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6), 137-151
- 이은아(2007). 중년기 남성의 가족 및 직업관련 변인과 생활 만족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16(3), 547-562
- 이형실(2003). 농촌 노인의 세대 간 사회적 지원 교환과 생활만족: 성별 및 연령집단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41(4), 57-69
- 임소진·어성연(2011). 중년기 성인들이 인지하는 주관적 삶의 질의 영향요인 분석 : 생태학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4), 129-147
- 임정빈·지영숙·문숙재·이기영·이연숙(1994). 가정관리학, 도서출판 신정

- 임효연(2009). 일본 대도시 독거노인의 자녀와의 지원교환형태에 따른 생활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47(5),59-66
- 임창희(2004). 노인의 생활특성과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명숙·박경숙(2012).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보건사회연구32(2), 232-266
- 전귀연·배문조(2010). 성인기의 노후준비의식과 노후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28(1), 13-24
- 전경숙·정태연(2009). 한국청소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15(1), 133-153
- 정기원(2001). 노부모와 별거 성인자녀와의 가족유대 : 정서적 지원에 대한 교환이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24(1), 123-148
- 정순돌·이선희(2011). 노인 삶의 만족도 변화 :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3개년도(1994, 2004, 2008)결과비교. 한국노년학31(4), 1229-1246
- 정영주(1999). 도시지역 노인의 생활만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13(2), 143-160
- 정의신(2007). 사적이전과 계층에 관한 분석, 한국노동패널대회
- 정의신(2008). 계층별 사적이전에 대한 분석, 사회경제평론 30, 191-223
- 정재훈(2010). 거주유형에 따른 노인의 사회적지지,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19(6), 233-240
- 조병은·신화용(1992). 사회교환론적 관점에서 본 맞벌이 가족의 성인딸/며느리와 노모의 관계. 한국노년학 12(2), 83-98
- 조주용·송미영·이근선(2009).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43, 135-156
- 주유선(2008). 노인의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 익산시 노인을

- 중심으로 -. 대학원논문집(41) 원광대학교 대학원, 107-125
- 하석철(2010). 가족 간 소득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석철(2010). 부모-자녀 간 소득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및 복지재정DB 학술대회 자료집, 349-374
- 한민아(2004). 세대 간 지원교환관계와 성인자녀의 심리적 복지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지수 · 홍공숙(2007). 노부모와 동거하는 기혼여성자녀의 시장노동 참여 및 참여 시간 결정요인:기혼여성자녀와 노부모와의 시간자원 이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45(6), 61-75
- 황남희 · 정주연(2009). 중고령자의 소득수준별 사적이전 비교분석 -자녀와의 동거를 고려하여 -. 한국재정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 황승일(2000). 초기노인의 노후관련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준수(2004). 지역사회거주 노인들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24, 127-151
- 홍성희 · 김혜연 · 김성희 · 윤소영 · 고선강(2008). 가정자원관리, 도서출판 신정
- 홍승아 외(2010).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지원서비스 효율화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홍달아기(1998). 노부모가 지각한 성인자녀에 대한 감정과 교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36(12) 115-127
- 최현석 · 하정철(2012). 노인의 생활전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12(1), 131-142
- 매일경제(2012.11.26) 대한민국 50대의 60%이상 “행복하지 않다”.

통계청(2012) 2012 사회조사결과

통계청(2012) 2012 고령자통계

통계청(2010) 2010 인구주택 총조사

Bernheim, B. D. et al(1985).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6), 1045-1076

Cox, D., & Rank, M. R.(1992). Inter-vivos Transfers and Intergenerational Exchange

Hentetta, J.C., Hill, M. S., W., Soldo, B.J., & Wolf, D. A(1997). Selection of children to provide care: The effect of earlier parental transfers. *Th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52B, 110-119.

Gary S. Becker(1992). *A Treatise on the Family*. Harvard University Press.

Gross, I. H., Crandall, E. W. & Knoll, M. M.(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4th Ed.)*, Englewood Cliff, N. J.; Prentice-Hall, Inc.

Koh, S.(2002). *Financial reciprocity and elder care: Understanding multiple, interdependent resource transfers*. Graduate College Iowa State University.

Koh, S., & MacDonald, M.(2006). Financial reciprocity and elder care: Interdependent resource transfer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7, 420-436

Lachman, E(2001). *Hand book of Midlife Development*.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Medley(1976), M. L.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Five Years and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31, 448-455

ABSTRACT

Life Satisfaction of Parents with Married Children: Resources Transfers and Retirement Preparation

Young-Sun Kim

Sungshin Women's University

Department of family culture and consumer sci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itigate the care-giving burden of adult-children for middle-aged parents and increase the life satisfaction of parents as helping them to prepare for later life, and thereby analyzing how resource transfers and preparation for later life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parents with married children.

To carry out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is study used the data collected from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in 2009 regarding inter-generational resources transfer and preparation for later life(kfr-2009-c00010) of middle-aged households. The final samples which are 1208 households of middle-aged parents with married children were used. To determine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s and status of resources transfer,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were measured using SAS/PC Statistic Program(Version 9.3). Cross-tab analysis, t-test, and ANOVA were conducted to examine resource

transfers, preparation for later life, and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resources transfer,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to find the factors affecting emotional support, preparation for later life, and life satisfaction. Also,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were conducted to comprehend the effect of resources transfer and preparation for later life regarding life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sources transfer between parents and married children, preparation for later life and life satisfaction of parents were examined. On the analysis of financial resource transfer between parents and married children, the ratio of parents to provide financial resource transfer to married children was 62.2%, and to receive financial resource transfer from married children was 38.9%. The ratio of parents to provide instrumental resource transfer to married children was 28.64%, and to receive instrumental resource transfer from married children was 6.87%. As a result, parents were more likely to provide both financial and instrumental resource transfer to married children than to receive from their children. Care-giving was the most common resource transfer when parents provide instrumental resource transfer to children, and dietary support was the most common resource transfer when parents receive instrumental resource transfer from children. The mean of emotional support was 4.04, so intimacy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showed high. The mean of preparation for later life was 2.63, and The mean of life satisfaction was 3.35.

Second, this study analyzed resources transfer between parents and married childre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arents and married children. The result showed that parents provide financial resource transfer to their children most frequently when parent's age is 55 to 59 years old. Also, education(higher), health status(excellent), income(higher), and number of children(two or fewer) were the parents' characteristics indicating that parents were more likely to provide financial resource transfer to their children. In addition, Age of children(younger), gender of children(male), level of education(higher), and number of children(none) were the married children's characteristics indicating that parents were more likely to provide financial resource transfer to their children. On the other hand, parents' income(3,000,000won through 5,000,000won or none), number of children(none), age of children(older than preschooler), and children's income(higher) were the characteristics demonstrating that parents are more likely to receive financial resource transfer from married children. Parents were more likely to provide instrumental resource transfer to married children depending on parents' income(none), children' age(between 30 to 34), gender of children(female), employment status of children(employed), Age of children(younger than preschooler), and household of children's income(more than 5,000,000won). Parents were more likely to receive instrumental resource transfer from married children when parent's income is over 5,000,000won, and children' age is older than preschooler. Also, emotional support between parents and married children appeared high intimacy level in such cases: parents' health status is great, children' gender is female, children' education

level is above university level, children are employed, household of children's income is high.

Third, this study analyzed preparation for later life and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arents. The result indicated that age(older), level of education(high), health status(excellent), household income(high) have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preparation for later life. Also, level of education(high), health status(excellent), and household income(high) were the indicators that showed higher life satisfaction.

Forth,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that influenced financial resource transfer, instrumental resource transfer, and emotional support between parents and married children. Parents were more likely to provide financial resource transfer to married children depending on household income of parents(high), children's age(younger), gender of children(male), age of parents(older), and level of education(high). The amount of financial resource transfer to married children increased when gender of children are male, parents are older, and the level of education is higher. The amount of financial resource transfer to married children decreased when married children have their own children older than preschooler. Parent received financial resource transfer from married children in such cases: emotional support is high, household income of parents is low, household income of married children is high, and married children have preschooler. The amount of financial resource transfer doesn't have a significant effect statistically, but parents were more likely to receive financial resource transfer when the level of children' education is high. Parents provided instrumental resource transfer to married children in such cases: parents received instrumental resource transfer from married

children, gender of children is female, children are employed, married children have their own children who either younger or older than preschooler, and household income of married children is high. The study found out that parents spent more time providing instrumental resource transfer to married children in such cases: parents received instrumental resource transfer from married children, gender of children is female, household income of married children is high, and married children doesn't have any income. There are more possibility for parents to receive instrumental resource transfer from married children, when parents provided instrumental resource transfer and household income of married children is high. The amount of time parents spent providing instrumental resource transfer to married children increased in such cases: parents provide instrumental resource transfer to married children, married children have their own children who are older than preschooler, household income of parents is high, and household income of married children is low. Also, whether to receive financial resource transfer or not, health status, and the number of children were the factors affecting emotional support. The level of intimacy increased in such cases: parents receive financial resource transfer from children, parent's health status is good, parents have less children, and the gender of children are female.

Lastly, this study researched how resource transfer between parents and married children and preparation for later life influenced on life satisfaction of parents. As a result of conducting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life satisfaction of parents showed higher in such cases: parents provide financial resource transfer to their children, emotional support with children is high, parents prepare for later life well, health status is

good, and income is high. The factor that has the greatest impact on life satisfaction of parents was preparation for later life. The influence of resources transfer, except for emotional support, was disappeared as a result of applying parent-related variable. This result showed that health status and household income have greater impact on life satisfaction than resource transfer between parents and married children. According to causal relationship of related-variables regarding life satisfaction of parents with married children, the variable that had the greatest impact on life satisfaction directly was preparation for later life when parameters were the amount of financial resource transfer and preparation for later life. Health status and household income, emotional support, and whether to receive financial resource transfer are factors arranged in order of greater impact on life satisfaction. Also, the number of children and level of education influenced indirectly on life satisfaction as being mediated by the amount of financial resource transfer and preparation for later life. The amount of financial resource transfer, age, level of education, income, and preparation for later life affected indirectly on life satisfaction as well. Health status and household income, and whether to receive financial resource transfer affected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On the causality analysis regarding life satisfaction mediated by emotional support and preparation for later life, preparation for later life was the factor that had the greatest impact on life satisfaction directly. Health status and household income, emotional support and whether to receive financial resource transfer are factors arranged in order of greater impact on life satisfaction. Also, the number of children influenced indirectly on life satisfaction through emotional support. Age,

level of education, income, and whether to receive financial resource transfer influenced indirectly applying the parameter which is preparation for later life. Health status and household income, and whether to receive financial resource transfer affected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1. 변수간의 상관관계와 경로분석

<부록 1> 각 변수 간 상관 관계표(경제적 자원 제공액)

	1	2	3	4	5	6	7	8	9	10	11
1. 경제적 자원 수혜여부											
2. 도구적 자원 수혜여부	0.052										
3. 정서적 지지	0.177 ***	-0.007									
4.연령	0.196 ***	0.061 *	-0.006								
5.교육수준	-0.001	-0.052	-0.003	0.052							
6.건강상태	-0.000	-0.068 *	0.133 ***	-0.043	0.143 ***						
7.가구소득	-0.065 *	0.050	0.008	-0.144 ***	0.277 ***	0.080 **					
8.소득활동 여부	-0.085 **	0.037	-0.012	-0.227 ***	0.020	0.060 *	0.228 ***				
9. 자녀수	0.044	0.041	-0.055	0.156 ***	-0.144 ***	-0.048	0.002	-0.053			
10. 경제적 자원 제공액	0.083 **	0.001	0.080 **	-0.065 *	0.150 ***	0.050	0.206 ***	0.038	-0.100 ***		
11.노후준비	-0.012	0.053	0.033	0.140 ***	0.219 ***	0.123 ***	0.286 ***	-0.047	0.016	0.220 ***	
12. 생활 만족도	-0.041	0.032	0.109 ***	-0.010	0.174 ***	0.209 ***	0.229 ***	0.049	-0.023	0.167 ***	0.453 ***

* p<.05, ** p<.01, *** p<.001

<부록 2> 각 변수 간 상관 관계표(경제적 자원 수혜액)

	1	2	3	4	5	6	7	8	9	10	11
1. 경제적 자원 제공여부											
2. 도구적 자원 제공여부	0.022										
3.정서적 지지	0.067	0.035									
4.연령	-0.067 *	0.061 *	-0.006								
5.교육수준	0.122 ***	-0.044	-0.003	0.052							
6.건강상태	0.060 *	-0.045	0.133 ***	-0.043	0.143 ***						
7.가구소득	0.181 ***	-0.002	0.008	-0.144 ***	0.277 ***	0.080 **					
8.소득활동 여부	0.369	-0.073 *	-0.021	-0.227 ***	0.020	0.060 *	0.228 ***				
9. 자녀수	-0.087 **	0.009	-0.055	0.156 ***	-0.144 ***	-0.048	0.002	-0.053			
10. 경제적 자원 수혜액	0.076 **	0.055	0.192 ***	0.204 ***	0.003	0.002	-0.049	-0.087 **			
11.노후준비	0.182 ***	0.021	0.033	0.140 ***	0.219 ***	0.123 ***	0.286 ***	-0.047	0.016		
12. 생활 만족도	0.162 ***	0.009	0.109 ***	-0.010	0.174 ***	0.209 ***	0.229 ***	0.049	-0.023	-0.038	0.453 ***

* p<.05, ** p<.01, *** p<.001

<부록 3> 각 변수 간 상관관계표(도구적 자원 제공시간)

	1	2	3	4	5	6	7	8	9	10	11
1.경제적 자원 수혜여부											
2.도구적 자원 수혜여부	0.052										
3.정서적 지지	0.177 ***	-0.007									
4.연령	0.196 ***	0.061 *	-0.006								
5.교육수준	-0.001	-0.052	-0.003	0.052							
6.건강상태	-0.000	-0.068 *	0.133 ***	-0.043	0.143 ***						
7.가구소득	-0.065 *	0.050	0.008	-0.144 ***	0.277 ***	0.080 **					
8.소득활동 여부	-0.085 **	0.037	-0.012	-0.227 ***	0.020	0.060 *	0.228 ***				
9. 자녀수	0.044	0.041	-0.055	0.156 ***	-0.144 ***	-0.048	0.002	-0.053			
10. 도구적 자원 제공시간	0.112 ***	0.156 ***	0.061 *	0.065 *	-0.078 **	-0.011	-0.025	-0.096 ***	0.013		
11.노후준비	-0.012	0.053	0.033	0.140 ***	0.219 ***	0.123 ***	0.286 ***	-0.047	0.016	0.003	
12. 생활 만족도	-0.041	0.032	0.109 ***	-0.010	0.174 ***	0.209 ***	0.229 ***	0.049	-0.023	-0.005	0.453 ***

* p<.05, ** p<.01, *** p<.001

<부록 4> 각 변수 간 상관관계표(도구적 자원 수혜시간)

	1	2	3	4	5	6	7	8	9	10	11
1.경제적 자원 제공여부											
2.도구적 자원 제공여부	0.022										
3.정서적 지지	0.067	0.035									
4.연령	-0.067 *	0.061 *	-0.006								
5.교육수준	0.122 ***	-0.044	-0.003	0.052							
6.건강상태	0.060 *	-0.045	0.133 ***	-0.043	0.143 ***						
7.가구소득	0.181 ***	-0.002	0.008	-0.144 ***	0.277 ***	0.080 **					
8.소득활동 여부	0.369	-0.073 *	-0.021	-0.227 ***	0.020	0.060 *	0.228 ***				
9. 자녀수	-0.087 **	0.009	-0.055	0.156 ***	-0.144 ***	-0.048	0.002	-0.053			
10. 도구적 자원 수혜시간	0.021	0.216 ***	-0.012	0.075 **	-0.038	-0.048	0.055	0.035	0.062 *		
11.노후준비	0.182 ***	0.021	0.033	0.140 ***	0.219 ***	0.123 ***	0.286 ***	-0.047	0.016	0.074 *	
12. 생활 만족도	0.162 ***	0.009	0.109 ***	-0.010	0.174 ***	0.209 ***	0.229 ***	0.049	-0.023	0.043	0.453 ***

* p<.05, ** p<.01, *** p<.001

<부록 5> 각 변수 간 상관관계표(정서적 지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경제적 자원 제공여부												
2.경제적 자원 수혜여부	0.090 **											
3.도구적 자원 제공여부	0.022	0.095 ***										
4.도구적 자원 수혜여부	0.030	0.052	0.255 ***									
5.연령	-0.067 *	0.196 ***	0.061 *	0.061 *								
6.교육수준	0.122 ***	-0.001	-0.044	-0.051	0.052							
7.건강상태	0.060 *	-0.000	-0.045	-0.068 *	-0.043	0.142 ***						
8.가구소득	0.181 ***	0.065 *	-0.002	0.050	-0.144 ***	0.277 ***	0.080 **					
9.소득활동 여부	0.037	-0.085 **	-0.073 *	0.037	-0.227 ***	0.020	0.060 *	0.228 ***				
10. 자녀수	-0.087 **	0.044	0.009	0.041	0.156 ***	-0.144 ***	-0.048	0.002	-0.053			
11. 정서적 지지	0.067 *	0.177 ***	0.035	-0.007	-0.006	-0.003	0.166 ***	0.008	-0.021	-0.055		
12.노후준비	0.182 ***	-0.012	0.021	0.053	0.140 ***	0.219 ***	0.123 ***	0.286 ***	-0.047	0.016	0.033	
13. 생활 만족도	0.162 ***	-0.041	0.009	0.032	-0.010	0.174 ***	0.209 ***	0.229 ***	0.049	-0.023	0.109 ***	0.453 ***

* p<.05, ** p<.01, *** p<.001

<부록 6> 부모와 자녀간 경제적 자원수혜와 노후준비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효과

변수		경제적자원 수혜액		노후준비		생활 만족도	
		B	β	B	β	B	β
독립 변수	자녀에게 주는 경제적 자원제공여부	0.612	0.094 **	0.285	0.131 ***	0.065	0.047
	자녀에게 주는 도구적 자원제공여부	0.281	0.040	0.043	0.018	0.003	0.002
	정서적지지	0.838	0.179 ***	0.022	0.014	0.077	0.079 **
부모 변수	연령	0.151	0.199 ***	0.046	0.183 ***	-0.004	-0.028
	교육수준	-0.014	-0.013	0.039	0.111 ***	0.008	0.037
	건강상태	0.013	0.003	0.127	0.083 **	0.129	0.134 ***
	가구소득(자연로그)	-0.148	-0.036	0.389	0.276 ***	0.097	0.111 ***
	소득활동여부	-0.314	-0.039	-0.181	-0.067 *	0.065	0.039
	자녀수	0.052	0.012	0.033	0.022	-0.004	-0.005
경제적 자원수혜액				-0.012	-0.036	-0.011	-0.051
노후준비						0.247	0.395 ***
상수		-8.867		-3.454		1.446	
F값		11.88***		21.67***		34.10***	
R ²		0.092		0.172		0.266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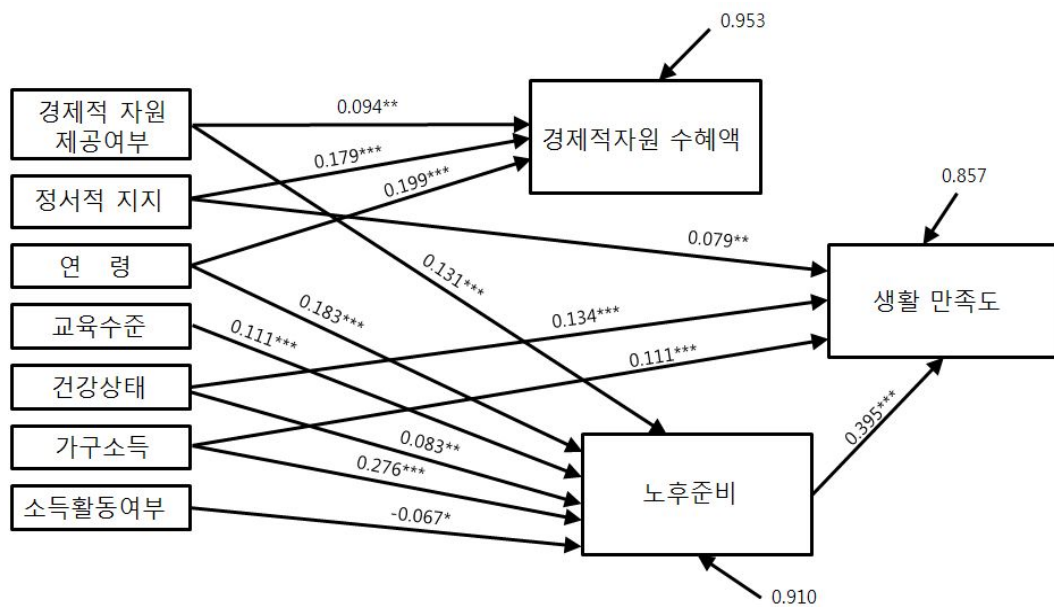
<부록 7> 생활 만족도에 대한 경제적 자원수혜와 노후준비 효과분석

종속 변수	독립변수	인과적 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경제적 자원 수혜액	자녀에게 주는 경제적 자원제공여부	0.094 **		0.094
	자녀에게 주는 도구적 자원제공여부	0.040		0.040
	정서적 지지	0.179 ***		0.179
	연령	0.199 ***		0.199
	교육수준	-0.013		-0.013
	건강상태	0.003		0.003
	가구소득(자연로그)	-0.036		-0.036
	소득활동여부	-0.039		-0.039
노후 준비	자녀에게 주는 경제적 자원제공여부	0.131 ***	-0.003	0.128
	자녀에게 주는 도구적 자원제공 여부	0.018	-0.001	0.017
	정서적 지지	0.014	-0.006	0.008
	연령	0.183 ***	-0.007	0.176
	교육수준	0.111 ***	0.000	0.111
	건강상태	0.083 **	0.000	0.083
	가구소득(자연로그)	0.276 ***	0.001	0.277
	소득활동여부	-0.067 *	0.001	-0.066
	경제적 자원 수혜액	-0.036		-0.036
생활 만족도	자녀에게 주는 경제적 자원제공여부	0.047	0.046	0.093
	자녀에게 주는 도구적 자원제공여부	0.002	0.004	0.006
	정서적 지지	0.079 ***	-0.006	0.073
	연령	-0.028	0.059	0.031
	교육수준	0.037	0.045	0.082
	건강상태	0.134 ***	0.033	0.167
	가구소득(자연로그)	0.111 ***	0.112	0.223
	소득활동여부	0.039	-0.023	0.017

	자녀수	-0.005	0.008	0.003
	경제적 자원 수혜액	-0.051	-0.014	-0.065
	노후준비	0.395 ***		0.395

* p<.05, ** p<.01, *** p<.001

< 부록 8> 부모의 경제적 자원 수혜와 노후준비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효과모형



* p<.05, ** p<.01, *** p<.001

<부록 9> 부모와 자녀간 도구적 자원 제공과 노후준비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효과

변수		도구적 자원 제공시간		노후준비		생활 만족도	
		B	β	B	β	B	β
독립 변수	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자원수혜여부	0.187	0.087 **	-0.050	-0.023	-0.067	-0.050
	자녀로부터 받는 도구적 자원수혜여부	0.587	0.138 ***	0.168	0.040	0.107	0.040
	정서적 지지	0.054	0.034	0.029	0.019	0.079	0.081 **
부모 변수	연령	0.012	0.046	0.044	0.173 ***	-0.005	-0.034
	교육수준	-0.025	-0.069 *	0.042	0.120 ***	0.009	0.041
	건강상태	0.009	0.006	0.137	0.089 **	0.132	0.138 ***
	가구소득(자연로그)	0.039	0.029	0.415	0.294 ***	0.099	0.113 ***
	소득활동여부	-0.233	-0.087 **	-0.192	-0.071 *	0.061	0.036
	자녀수	-0.026	-0.018	0.021	0.015	-0.006	-0.008
도구적 자원 제공시간				-0.004	-0.004	-0.003	-0.005
노후준비						0.250	0.400 ***
상수		-0.193		-3.359		1.497	
F값		5.92***		19.42***		34.04***	
R ²		0.048		0.157		0.266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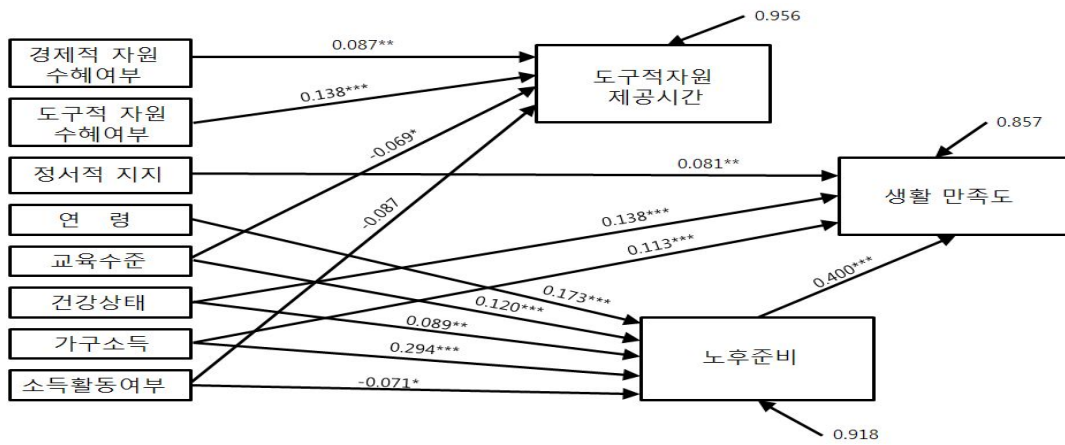
<부록 10> 생활 만족도에 대한 도구적 자원 제공과 노후준비효과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인과적 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도구적 자원 제공 시간	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자원수혜여부	0.087 **		0.087
	자녀로부터 받는 도구적 자원수혜여부	0.138 ***		0.138
	정서적 지지	0.034		0.034
	연령	0.046		0.046
	교육수준	-0.069 *		-0.069
	건강상태	0.006		0.006
	가구소득(자연로그)	0.029		0.029
	소득활동여부	-0.087 **		-0.087
	자녀수	-0.018		-0.018
노후 준비	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자원수혜여부	-0.023	0.000	-0.023
	자녀로부터 받는 도구적 자원수혜여부	0.040	-0.001	0.039
	정서적 지지	0.019	0.000	0.019
	연령	0.173 ***	0.000	0.173
	교육수준	0.120 ***	0.000	0.120
	건강상태	0.089 **	0.000	0.089
	가구소득(자연로그)	0.294 ***	0.000	0.294
	소득활동여부	-0.071 *	0.000	-0.071
	자녀수	0.015	0.000	0.015
도구적 자원 제공시간	-0.004		-0.004	
생활 만족도	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자원수혜여부	-0.050	-0.010	-0.060
	자녀로부터 받는 도구적 자원수혜여부	0.040	0.015	0.055
	정서적 지지	0.081 **	0.008	0.089
	연령	-0.034	0.069	0.035
	교육수준	0.041	0.048	0.089
	건강상태	0.138 ***	0.036	0.174
	가구소득(자연로그)	0.113 ***	0.118	0.231

	소득활동여부	0.036	-0.028	0.008
	자녀수	-0.008	0.006	-0.002
	도구적 자원 제공시간	-0.005	-0.002	-0.007
	노후준비	0.400 ***		0.400

* p<.05, ** p<.01, *** p<.001

<부록 11> 부모의 도구적 자원 제공과 노후준비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효과 모형



* p<.05, ** p<.01, *** p<.001

<부록 12> 부모와 자녀간 도구적 자원 수혜와 노후준비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효과

변수		도구적자원 수혜시간		노후준비		생활 만족도	
		B	β	B	β	B	β
독립 변수	자녀에게 주는 경제적 자원제공여부	0.023	0.029	0.275	0.126 ***	0.056	0.041
	자녀에게 주는 도구적 자원제공여부	0.160	0.187 ***	0.019	0.008	-0.014	-0.009
	정서적 지지	0.001	0.002	0.012	0.007	0.068	0.069 *
부모 변수	연령	0.008	0.087 **	0.044	0.172 ***	-0.007	-0.042
	교육수준	-0.005	-0.042	0.040	0.113 ***	0.009	0.040
	건강상태	-0.019	-0.034	0.130	0.085 **	0.130	0.136 ***
	가구소득(자연로그)	0.026	0.052	0.387	0.275 ***	0.097	0.110 ***
	소득활동여부	0.048	0.049	-0.184	-0.068 *	0.064	0.038
	자녀수	0.024	0.045	0.029	0.020	-0.007	-0.007
도구적 자원수혜시간				0.125	0.046	0.084	0.049
노후준비						0.247	0.394 ***
상수		-0.542		-3.279		1.585	
F값		6.65***		21.79***		34.09***	
R ²		0.054		0.173		0.266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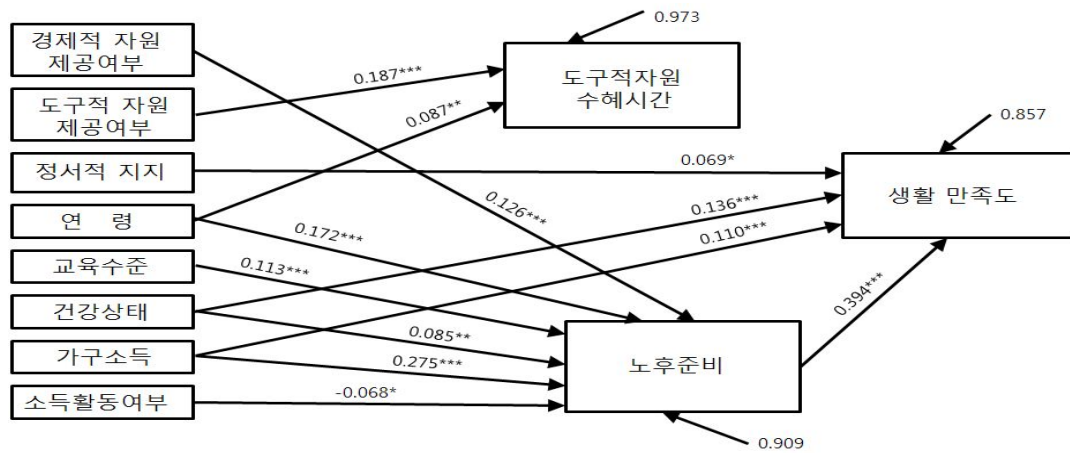
<부록 13> 생활 만족도에 대한 도구적 자원 수혜와 노후준비의 효과분석

종속 변수	독립변수	인과적 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도구적 자원 수혜 시간	자녀에게 주는 경제적 자원제공여부	0.029		0.029
	자녀에게 주는 도구적 자원제공여부	0.187 ***		0.187
	정서적 지지	0.002		0.002
	연령	0.087 **		0.087
	교육수준	-0.042		-0.042
	건강상태	-0.034		-0.034
	가구소득(자연로그)	0.052		0.052
	소득활동여부	0.049		0.049
	자녀수	0.045		0.045
노후 준비	자녀에게 주는 경제적 자원제공여부	0.126 ***	0.001	0.127
	자녀에게 주는 도구적 자원제공 여부	0.008	0.009	0.017
	정서적 지지	0.007	0.000	0.007
	연령	0.172 ***	0.004	0.176
	교육수준	0.113 ***	-0.002	0.111
	건강상태	0.085 **	-0.002	0.083
	가구소득(자연로그)	0.275 ***	0.002	0.277
	소득활동여부	-0.068 *	0.002	-0.066
	자녀수	0.020	0.002	0.022
	도구적 자원 수혜시간	0.046		0.046
생활 만족도	자녀에게 주는 경제적 자원제공여부	0.041	0.052	0.093
	자녀에게 주는 도구적 자원제공여부	-0.009	0.015	0.006
	정서적 지지	0.069 *	0.003	0.072
	연령	-0.042	0.074	0.032
	교육수준	0.040	0.042	0.082
	건강상태	0.136 **	0.030	0.166
	가구소득(자연로그)	0.110 ***	0.112	0.222

	소득활동여부	0.038	-0.024	0.014
	자녀수	-0.007	0.011	0.004
	도구적 자원 수혜시간	0.049	0.018	0.067
	노후준비	0.394 ***		0.394

* p<.05, ** p<.01, *** p<.001

<부록 14> 부모의 도구적 자원 수혜와 노후준비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효과 모형



* p<.05, ** p<.01, *** p<.001

II. 다음은 귀하 자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부부는 슬하에 자녀가 몇 명이십니까? _____ 남 _____ 녀

1-1. 귀하부부의 모든 자녀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녀수만큼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첫째 자녀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세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기혼	② 이혼	③ 사별	④ 미혼
	취업을 하였습니까?	① 취업		② 미취업	
	귀하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동거		② 비동거	
둘째 자녀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세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기혼	② 이혼	③ 사별	④ 미혼
	취업을 하였습니까?	① 취업		② 미취업	
	귀하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동거		② 비동거	
셋째 자녀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세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기혼	② 이혼	③ 사별	④ 미혼
	취업을 하였습니까?	① 취업		② 미취업	
	귀하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동거		② 비동거	
넷째 자녀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세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기혼	② 이혼	③ 사별	④ 미혼
	취업을 하였습니까?	① 취업		② 미취업	
	귀하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동거		② 비동거	
다섯째 자녀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세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기혼	② 이혼	③ 사별	④ 미혼
	취업을 하였습니까?	① 취업		② 미취업	
	귀하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있다 [1-1번으로 가시오]

② 없다 [2번으로 가시오]

1-1. **최근 5년간** 선택한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총액은 대략 얼마입니까?
총 _____ 만원

2. 귀하부부는 선택한 자녀부부로부터 가사일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① 도움 받는다

② 도움 받지 않는다

2-1. 선택한 자녀부부가 주로 어떤 가사일을 도와주는지 보기에서 번호를 골라 쓰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① 의생활 영역(다림질, 특별의류손질, 세탁 등)

② 식생활 영역(식사준비, 특별음식준비, 설거지 등)

③ 주생활 영역(청소, 주택손질과 주택보수, 정원과 자동차손질, 집봐주기 등)

④ 가족원 돌보기(손자녀 돌보기와 생활관리 등)

⑤ 관리영역(장보기, 은행업무 등)

2-2. **최근 1년 동안** 귀하부부가 선택한 자녀부부로부터 가사일을 도움 받은 시간은 얼마입니까?
일주일에 평균 _____ 시간